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지반구획입대경성정도의 재현방식 연구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영 주

국문초록

지번입구획대경성정도의 재현 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영 주
지도교수 John Hong

지도는 복합적인 정치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진, 어떤 주장이 담긴 결과물로서 재현물을 이해하는 특정한 시점을 제공한다. 서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도 제작 주체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도시를 재현하는 방식이 변화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1936년에 제작된 ‘지번입구획대경성정도(이하 대경성정도)’의 도시 재현 방식에 주목하여 본 지도의 배경에 자리한 정치 문화적 입장을 추적하고 그 재현의 전략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경성정도’는 한반도의 근대적 측량이 시작된 대한제국기나 일제강점기 초기 이후로 제작된 다른 경성(한양)의 민간시가지도들과 상이한 도시 재현 방식을 보인다. 1910년대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로 제작된 지적원도들에 기입된 정보인 필지선, 지적선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도에 등장한 현재까지 발견된 첫 사례이다. 그 이후로 같은 재현 방식으로 제작된 지도는 해방 후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등장하게 된다.

본 연구는 ‘대경성정도’의 재현 방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근대적 측량이 첫 시행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지도의 도시 재현 분석을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근대적 측량 방식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고, 측량도인 지형도와 지적도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지도학 내적 요인으로 인한 도시 재현 방식의 변화를 분석한다. 새로운 측량이나, 새로운 토지 관련 법령 제정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도시 정보가 민간시가지도에 등장한다. 두번째로는 민간 시가지도의 제작에 있어서 측량에 의하여 생산된 도시 정보의 선택과 재가공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 문화적 압력, 지도학 외적 요인으로 인한 민간 시가지도들의 도시 재현 방식 변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먼저 경성의 측량 연보와 지형도와 지적도의 제작 연보를 살펴보고, 지도학 내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지도 연구 범주 시기 내의 민간 시가지도들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는 ‘대경성정도’의 도시 재현 방식이 지도학 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시가지도의 연보 속에서 ‘대경성정도’가 지니는 의미를 도출해내었다.

‘대경성정도’에 기입된 지적선이라는 토지 정보의 경우 정보의 저본이 되는 지적도가 1910년대에 이미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이 되어서야 시가지도의 제작자에 의하여 선택되고, 재가공되었다는 점에서 ‘대경성정도’가 보여주는 변화는 지도학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현 방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930년대의 증가한 건축활동과 토지 거래 증가,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도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필지라는 매개체의 중요성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주요어 : 서울 지도, 지도학, 도시 재현, 일제강점기

학 번 : 2017-25592

목 차

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2. 서울 측량과 도시 정보의 생산	12
2.1. 지형 측량: 물리 정보 재현의 역사.....	12
2.2. 지적 측량: 토지 정보 재현의 역사.....	24
3. 도시 정보의 확산과 시가지도에의 영향	28
3.1. 토지 조사 사업 이전의 경성 시가지도.....	28
3.2. 토지 조사 사업 이후의 경성 시가지도.....	34
3.3.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의 제작	42
4. 대경성정도의 도시 재현 방식과 이데올로기	49
4.1. 지적선으로 재현된 도시	49
4.2. 이데올로기와 재현 방식의 반복.....	52
5. 결 론	55
참고문헌	57
Abstract	59

표 목차

표 1-1 연구 문헌자료 목록.....	8
표 1-2 연구 범주 내 지형도 및 지적도 목록.....	8
표 1-3 연구 범주 내 서울의 민간 시가지도 목록.....	11
표 2-1 일제의 경성 지역 지형 측량 연보.....	13
표 2-2 일만분지일지형도(1926) 범례 분류.....	23
표 3-1 한국경성전도(1903) 범례 분류.....	31
표 3-2 경성부시가강계도(1914) 범례 분류.....	34
표 3-3 경성시가도(1927) 범례 분류.....	37
표 3-4 대경성정도일람도 범례 분류.....	46
표 3-5 대경성정도 분도 범례 분류.....	48

그림 목차

그림 2-1 한성근방도 부분.....	15
그림 2-2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 한성.....	15
그림 2-3 한국경성전도.....	17
그림 2-4 오만분지일지형도 - 경성.....	19
그림 2-5 오만분지일지형도 - 경성 부분 확대 이미지.....	19
그림 2-6 일만분지일지형도 - 경성 3번 도엽.....	21
그림 2-7 일만분지일지형도 - 경성 3번 도엽 부분 확대 이미지.....	21
그림 2-8 일만분지일지형도 범례 - 경성 2번 도엽의 일부.....	23
그림 2-9 지적원도 - 경성부 남부 남의청정 외 4정.....	26
그림 2-10 지적원도 - 경성부 남부 남의청정 외 4정 부분 확대 이미지....	26
그림 3-1 경성(조선 여지도).....	29
그림 3-2 한국경성전도.....	31
그림 3-3 경성부시가강계도.....	33
그림 3-4 경성시가도.....	36
그림 3-5 경성부관내도.....	39

그림 3-6 경성부관내도.....	39
그림 3-7 경성정밀지도.....	41
그림 3-8 경성정밀지도 부분 확대 이미지 - 경성부청 근방.....	41
그림 3-9 대경성정도일람도.....	44
그림 3-10 대경성정도 - 5번 분도.....	44
그림 3-11 대경성정도일람도 범례.....	46
그림 3-12 대경성정도 - 5번 분도 부분 확대 이미지 - 경성부청 근방.....	48
그림 3-13 대경성정도 분도 범례.....	48
그림 4-1 대경성부대관.....	51
그림 4-2 경성시가도.....	51
그림 4-3 신편서울특별시전도일람도.....	53
그림 4-4 신편서울특별시전도.....	5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역사적으로 모든 지도 제작(mapping)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도는 본질적으로 두 차원에서 작동한다. 첫 번째로는 문화적 산물로서의 지도이며 여기서 지도는 외부 세계와의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진 복합적인 주장이 담긴 결과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둘째로는 물질문화의 한 요소로서의 지도이며 이 때 지도는 생산된 이후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고 교환되어, 의미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¹ 때문에 지도는 중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언제나 제작자의 주관성이나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압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이 내재적인 의미는 다시 지도가 사용자들이 실제의 물리적 공간을 인지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를 해석하는 인지적인 틀을 제공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지도더라도 배경의 정치 문화적 압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지도가

¹ Denis Cosgrove. *Mapping*. Reaktion Books. 1999. p.9

제작될 때 그 제작의 주체들은 재현하려 하는 물리적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framing)’, 재현의 ‘스케일(scale)’을 결정하며, 그 중 지도에 표현할 정보를 ‘선택(selection)하고’, 이 정보들을 ‘기호 체계(code)’로 변환한다.²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도 제작 주체의 의도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과학 기술로 정밀하게 제작된 지도이라고 해도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곡면을 평평한 차트 위로 펼쳐내야 하며, 끊임없이 출렁이는 해안선을 하나의 선으로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도 제작 기술 속에 내재한 딜레마를 이해한다면 세상에는 진정으로 진실하게 재현 대상을 보여주는 지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겉보기에 읽는 이에게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지도라도 하나의 체계를 통하여 공간 정보들을 전체화(totalizing)한 결과물이고 이 전체화의 방식은 당시의 지도 제작 주체들의 복합적인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면도법(ichnography)이외에도 역사적으로 도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어 왔다. 도시를 공중의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보아 도시의 전체적인 형상과, 도시 내의 생활 상들을 담아낸 조감도(bird eye view), 17,18세기 유럽에서 항구 도시들을 재현할 때 자주 사용된 도시를 배에서 바라본 경관(profile)으로 재현하는 방식, 피렌체와 같은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도시를 높은 첩탑과 같은 곳에서 바라보아 시가지 내 건물들의 지붕의 집합으로 재현하는 파노라마 등, 각 시대와 지역의 문화적 요구에 적합한 방식이 고안되어 온 것이다. 때문에 각 도시 지도들의 바탕에 자리한 복합적인 주장을 이해할 때야 비로소 지도는 단순한 여행자의 길안내를 위한 지침서에서 벗어나 당대의 정치 문화적 패러다임이 반영된 이데올로기로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도가 이를 읽는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의 시점에 의하여 전체화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와 다른 인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² Denis Cosgrove. *Mapping*. Reaktion Books, 1999, p.9

위험성까지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 특히 도시에 대한 지도들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재현된 도시는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일상적으로 느끼는 실존적 경험들, 그 지도가 참조했던 실재의 소멸을 표방하는 것으로 제작된 방식의 흔적을 지우고 중립적인 정보로서의 지위를 얻는다³. 이 때 이데올로기로서의 지도는 ‘이데올로기는 개인이 실재 조건과 맺고 있는 상상적 관계를 재현한다.’⁴ 라는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이데올로기 개념에 빗대어 설명될 수 있다. 지도가 한 주체의 도시에서의 실존적 경험과의 관계의 상상적 재현이라면,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긍정했듯 이데올로기가 개별 주체의 실제 생활의 층위와 그 주체들이 소속된 계급 구조의 전체성 사이의 괴리, 개별 주체의 현상학적인 인식과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준다면⁵, 지도 역시 자신이 재생산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도시와의 간극을 보여주며 도시 재현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시켜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에서 출발하여 서울의 지도들을 제작 당시의 시대 배경에 자리한 정치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분석하고, 지도를 당대의 도시에 대한 이데올로기 주장의 결과물로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1936년에 제작된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이하 대경성정도)’를 이러한 연역적 추론의 대상으로 한다. ‘모든 지도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대경성정도는 지도이다.’, ‘따라서 대경성정도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로 이어지는 연역적 추론을 통하여 일제 시대에 제작된 지도들의 제작 방식과 물리적 대상을 재현하는

³ F. Farinelli, *I segni del mondo: immagine cartografica e discorso geografico in eta moderna*. Scandicci, Nuova Italia. 1992. p.17-34. Ola soderstrom. Paper Cities: Visual Thinking in Urban Planning, *Ecumene III/3*, 1996. 6, p.260 에서 재인용

⁴ Louis Althusser.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Lenin and Philosophy*, New York, 1972.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ke University Press. 1991. p.51 에서 재인용

⁵ Fredric Jameson. Cognitive Mapping.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0

방식을 다시 고찰하는 연구의 하나의 예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경성정도’는 경성부역의 확장이 발표된 1936년에 경성의 지성당 서점에서 경성부청의 교열을 거쳐 인쇄 및 발행되었으며 1:6,000 축척의 13장의 분도로 이루어져있다.⁶ 대경성정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여타의 다른 지도들보다 대축척으로 시가지를 자세하고 묘사하고 있는 동시에, 도시를 주요 건물들의 윤곽과 지적선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역의 확장 직후 제작된 지도가 도시를 지적선의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데 1918년도에 종료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전체의 지적원도가 작성된 이후, 이와 같이 도시의 일반도에서 지적선을 표현하고 있는 현재까지 발견된 첫 지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현 방식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가 없어 당시의 시대 상을 통하여 추론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한 제국기와 일제 시대의 지도들에 대한 선행 연구 역시 일제의 측량 침탈 역사와 당시 제작된 일련의 일련의 지형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지적 측량의 역사와 지적도 제작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며,⁷ 그 이외의 일제 시대에 제작된 지도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⁶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지도』. 예맥출판사. 2006. p.227

⁷ 먼저 지형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제작과정과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남영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한반도 지도제작, 한국지도학회지 제 7권 제 1호, 2007, / 남영우, 일제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한 병요조선지도 및 한국근대지도의 작성과정, / 이용석, 일제강점기 제작된 근대 지형도의 성격과 활용, 생활문화연구, 7, 2002 등이 있으며, 범례에 대한 연구로는 범선규, 1:50,000 지형도의 상징화된 범례와 그 변천, 한국지도학회지, 3(1), 2003 가 있으며, 지명에 대한 연구로는 김선희, ‘오만분일지형도’에 나타난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분포와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1), 2008, / 미즈노 슌페이, 일제강점기 지형도(제 3차 지형도, 기본도)에 나타난 지명의 자료적 성격, 지명학, 21, 2014 등이, 지형 재현에 대한 연구로는 김감영,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의 지형 재현 정확도 평가, 한국지도학회지, 18권 2호, 2018 등이 존재한다. 지적측량과 지적도에 관한 연구로는 리진호, 한국지적사. 바른길. 1999, / 강병식, 일제시대 서울의 토지연구. 민족문화사. 1994, / 김영수, 지종덕. 한국 지적측량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권 1호. 2011 등이 지적 측량과 제작의 통사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한제국기 지적도 제작 연구로는 반도미야, 대한제국기의 토지조사와 지도제작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당대 민간에서 제작한 도시의 시가도(city map)들에 대한 제작 배경과 재현 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고지도와 근대 지도들을 엮은 지도집에 각 지도들에 대한 해제가 수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들은 보통 지도를 정보의 매개체 차원에서 도시의 변화과정을 해석하는 데에 집중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⁸

하지만 일제강점기는 한국의 지도학의 역사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지도 제작사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기에, 한국의 지도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일제강점기의 지도들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대경성정도가 보여주는 도시의 재현 역시 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다시 직접적인 영향을 준 지도들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초중반의 서울의 시기별 사회 문화 구조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도시 재현 방식들을 만들어내었는지를 통사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도를 도시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매체로 이해하고 서울의 지도들에 대한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에 관한 고찰 - 한성부 대축적 실측도를 중심으로 -, 지리학 논총, 52권, 2008 등이, 일제강점기 지적공부 및 필지의 도입사 연구에는 송혜영, 일제강점기 지적공부의 작성과 의미, 건축 역사연구, 27권 2호, 2018, / 송혜영, 서치상. 토지의 등록단위 필지에 대한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 등이 존재한다.

⁸ 연구 범주 내 지도들을 다루는 지도집으로는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94./ 이찬, 양보경, 서울의 옛 지도, 서울학연구소, 2004. / 서울시립대학박물관, 땅의 흔적, 지도 이야기, 예맥출판사, 2004,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예맥출판사, 2006, /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부지적도, 2015, / 서울역사박물관, 대경성부대관, 예맥출판사, 2015 등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전술하였듯이 대경성정도의 제작 배경이나 재현 방식 선택의 경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민간 지도 제작사와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추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연구에서는 먼저 민간 지도들이 보이는 도시 재현 방식의 역사적 맥락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었다.

도시의 재현 방식이 가지는 의미는 그들이 지도 제작 주체의 도시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형태화, 결정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의 재현은 선택(selection), 전략화(schematization), 그리고 통합(synthesis)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⁹ 본 연구에서는 때문에 대경성정도가 당시에 제작된 다른 지도들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선택’, ‘전략화’, ‘통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도시를 재현하고 있는 지를 비교분석한다.

일제 시대 서울(경성)의 민간 지도들에 대한 연구는 전술하였듯이 각 지도들의 소장 연구 기관에서 출판한 서적들 속의 도판에 대한 해제에 그치기 때문에 먼저 민간 지도들의 역사적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선행 조건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근대적 측량 기술이 보급되고 경성을 포함한 한반도의 측량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야만 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 범주 내 민간 지도들의 역사적 맥락을 두 가지 층위에서 검토한다.

첫째로 검토할 변화 양상은 측량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측량 정보가 생산되고 지도 제작에 사용되면서 지도가 도시를 재현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지도학 내적 요인에 의한 맥락이다. 관찬 지도가 아닌 민간 지도라는 특성 상 지도에 기입될 토지에 대한 물리 정보나 행정

⁹ R. Arnheim, *Visual Thin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Ola soderstrom, *Paper Cities: Visual Thinking in Urban Planning*, *Ecumene III/3*, 1996. 6, p.252 에서 재인용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지도의 역사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실제로 근대적 측량정보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19세기 말이나, 1910년대의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 전후 시기를 살펴보면 새로운 측량으로 제작된 관찬 지도들을 통하여 생산된 정보들이 민간 지도들로 확산되어 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검토할 변화 양상은 민간 지도가 제작될 당시의 정치 사회적 압력, 특정한 도시 재현 방식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변화하면서 지도가 도시를 재현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지도학 외적 요인에 의한 맥락, 이데올로기의 맥락이다. 시대적 압력이 도시의 재현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양상은 지도에 기입할 정보를 저본이 되는 타지도들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택’한 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같은 종류와 양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정치 사회적 압력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지도들이 등장하게 된다.

연구 범주 내 시대는 특히 근대적 측량 기법이나 지도 제작 기법 등이 한반도에 최초로 실시되었던 시기였고, 이로 인한 도시 재현 방식의 변화의 폭이 컸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지도학 내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경성정도의 경우 내적 요인이 영향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재현 방식의 변화 양상이 보이고 있었고, 이를 지도학 외적 요인의 영향이라 판단하여 당시의 사회 경제 상을 조사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당대의 도시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속에서 대경성정도의 도시 재현 방식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2장에서 연구 범주 내 시기의 먼저 도시 정보의 측량 및 재현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경성정도 제작 시기의 지도 내적 요인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지도학 내적인 맥락의 저본이 되는 두

구분	연구주제 / 제목	저자
선행연구	측량침탈역사와 1:50,000 지형도 제작 경위	남영우(1992, 2007, 2011) 이용석(2002)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지리정보원(2009)
	일제강점기 지적사	리진호(1999) 강병식(1994)
	한성부지적도	양보경, 김종근(2015)
	지적측량사 연구	김영수, 지종덕(2011)
문헌기록	토지조사사업보고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1918) 건설부 국립지리원(1981)
	토지조사사업보고서추록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1919)
	육지측량부발행지도목록	육지측량부(1931, 1935)

표 1-1 연구 문헌자료 목록

구분	지도명	제작년도	축척	출처
지형도	조선국경성지약도	1883	1:10,000	조선(朝鮮)(昭和14 10月號)
	한성근방도	1886	1:20,000	경성부사 2권
	한국경성전도	1906	1:5,000	영남대학교박물관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1911	1:50,00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오만분지일지형도	1917	1:50,000	종로도서관
	일만분지일지형도	1922 1926	1:10,000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지적도	한성부지적도	1908	1:500	서울역사박물관
	지적원도	1910~	1:600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지적도일람도		1:12,000	

표 1-2 연구 범주 내 지형도 및 지적도 목록

종류의 실측지도들을 다룬다. 하나는 일반측량에 의하여 제작된 지형도로, 취락, 교통, 수계, 경계, 기호지물 등의 지물, 등고선 및 변형지 등의 도시의 물리적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제작된 지적도이며,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면적, 경계 및 위치, 소유자 등 도시의 토지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¹⁰ 이 두 측량은 일제 강점기 시기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서로 다르게 운영, 발전되어 왔기에,¹¹ 이 두 지도의 측량사와 제작 연보를 조사함으로써 대경성정도의 제작 이전까지 어떠한 도시 정보들이 생산되어 왔는 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시기 내의 지형도 및 지적도는 대한제국 시기 탁지부 양지아문이나 강점기 시기 육지측량부 및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등의 관에 의하여 제작되어 보고서 및 목록 등의 기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제작 연보를 구축하였다(표 1-1). 지형도와 지적도를 분석할 때에는 <표 1-2>와 같이 문헌 조사에 언급된 지형도 및 지적도 중 국내의 연구기관 내 검색을 통해서 실제로 도판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들만을 연구의 범주 내에 포함하였다.

3장에서는 대경성정도와 연구 범주 내 민간 시가지도들의 도시 지형 지물 재현 방식과 지도의 범례를 이루는 도식¹² 들을 비교 연구하여 3장에서 정리한 지도학 내적 요인이 도시 재현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 지를 분석한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구 범주 시기 내의 서울(한양, 경성) 지도들을 중에서 아래의 기준을 통하여 선별한 지도들을 연구 범주 내 지도들로 삼았다. 선별한 연구 범주 내의 지도들을 아래의 <표 1-3>과 같다.

¹⁰ 김영수, 지종덕, 국지적측량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1), 2011, p.96

¹¹ Ibid.,

¹² '도식'은 지도의 조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상의 표시를 위한 기호, 주기 및 지도의 장식에 관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범선규(2003), p.24

1. 계획도와 같이 특정 계획의 시각적 재현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제도와 같이 특정 시설에 대한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들을 제외하였다.
2. 소비의 주체로 일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당시 민간에 공개되었던 지도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이러한 민간용 일반도들이 도시에 대한 인식의 틀을 넓은 범위의 소비 주체들 속에서 재생산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3. 도시에 대한 재현 방식으로는 평면도법에 기반한 지도들만을 선택하였다. 같은 시기 동안 제작된 조감도나, 항공사진, 파노라마 지도를 제외하고 평면도법 상에서의 재현 방식의 변화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¹³

4장에서는 ‘대경성정도’가 제작된 1936년의 전후 시대 상을 조사하여 지도 외적인 요인, 이데올로기의 압력을 분석한다. 사회 경제 패러다임의 조사에는 대경성정도의 특징인 필지의 표현과의 연관성을 지닌 요인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또한 ‘대경성정도’가 제작된 시기와 유사한 도시에 대한 사회 정치적 상황을 보이는 1960~70년대에 제작된 지도를 살펴봄으로써, 도시 이데올로기와 도시 재현 방식과의 관계성을 도출한다.

¹³ 같은 시기 동안 평면도법 이외에 도시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의 방식이 도시 재현 방식으로 다수의 재현물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특히 ‘조선물산공진회장지도(1915)’, ‘경성유람안내도(1920년대 후반)’, ‘조선박람회도회(1929)’ 등의 경성의 관광용 지도에서 많이 발견된다. 또한 당시에 사진 기술이 유입되면서 ‘대경성사진첩(1937)’이나 ‘대경성도시대관(1937)’과 같은 시가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으로 도시가 재현되기도 했으며, 조감도와 같이 도시의 모습을 항공기에서 촬영하는 파노라마 사진들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대경성부대관(1936)’과 같이 파노라마 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노라마 지도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지도명	제작년도	축척	출처
한국경성전도	1903	1:10,000	서울역사박물관
실측상밀최신경성전도	1907	1:10,000	고려대학교박물관
경성시가전도	1910	-	서울역사박물관
경성용산도	1910	-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부 시가도	1911	1:5,000	국립중앙도서관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	1911	1:10,000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도	1913	-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부시가강계도	1914	1:10,000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부명세신지도	1914	1:10,000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부관내도	1917	1:16,000	서울역사박물관
경성시가도	1918	1:7,500	토지조사보고서추록
	192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933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도(조선교통지도)	1924	1:25,000	서울역사박물관
최신경성시가전도	1926	1:10,000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용산시가도	1927	1:7,500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부관내도	1927	1:15,000	서울역사박물관
경성시가전도	1929	1:10,000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경성정밀지도	1933	1:4,000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부관내도	1934	1:15,000	서울역사박물관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	1936	1:6,00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부관내도	1930년대 후반	1:25,000	서울역사박물관
지번입대경성정밀도	1940	1:10,000	서울역사박물관
대경성명세도	1940	1:12,000	서울역사박물관
대경성명세도	1941	1:24,000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표 1-3 연구 범주 내 서울의 민간 시가지도 목록

2. 서울의 측량과 도시 정보의 생산

2.1. 지형 측량 : 물리 정보 재현의 역사

연구 범주 내 시가지도의 일반적인 축척이 1:10,000 이하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이하의 대축척 실측을 통하여 제작된 지형도를 저본으로 제작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표 2-1>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의 선행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국가 기본도로 사용되었던 1:50,000 축척 지형도의 제작 경위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언제 처음으로 해당 축척의 경성의 실측 지형도가 제작되었는지는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사하였을 때 불분명하다. 남영우(2007) 역시 근대적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가도가 1903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1890년대부터 서울의 대축척 측량이 진행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¹⁴

근대적 측량 방식을 통한 한반도 지형 지물의 측량은 19세기 말 일본 육군 간첩대에 의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그 시작이다. 대부분 소수의 측량대원들이 목측이나 평판 측량을 통하여 지도를 제작하였기에 도시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거나 정확도가 이후의 지도들에

¹⁴ 남영우, 1992, p.93

측량시기	축척	주체	개요
1882	1:40,000	참모본부 측량국	현지 답사 및 목측 조선경성도 제작
1883	1:10,000 1:20,000	참모본부 측량국	실제측량 조선국경성지약도 한성근방도 제작
~1884	1:100,000	내무성 지리국, 참모본부 측량국	漢城近傍地圖 제작, 발간(1884~1885)
1895~1899	1:50,000	육지측량부 제1차 임시측도부	朝鮮略圖 ¹⁵ 제작 발행
1904~1905	1:5,000, 1:1,200	육지측량부	서울 일대 지도 제작 최초의 삼각측량 한국경성진도 제작
1908~1911	1:50,000	제2차 임시측도부	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제작 발행 간측과 삼각측량 사용
1910~1918 (이후 수정 및 추가 측량)	1:50,000 1:25,000 1:10,000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토지조사사업의 일환 한반도 전체 삼각측량 도근측량, 일필측량
1936~1943	1:50,000 1:25,000 1:10,000	육지측량부	만주 측량을 위한 삼각측량 기존 지형도 개수 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

표 2-1 일제의 경성 지역 지형 측량 연보
(남영우, 1992, 2007, 이용석, 2002, 범선규, 2003 참조)

¹⁵ 남영우는 이 지도가 간첩대에 의하여 은밀하게 제작된 지도이므로 軍用秘圖(군용비도)라 칭한다.(남영우, 2007) 이 지도는 1996년도에 남영우 편저로 성지출판사에서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라는 이름의 지도집으로 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성지출판사의 판본을 참조한다.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삼각측량 등의 정밀 측량이 가능해진 건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한반도 내 측량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이다. 그리고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측량 형태와 측량 목적이 군사적 목적에서 점차 통치적 목적으로 변화하게 되고,¹⁶ 통치를 위한 도시의 기반 정보들이 지도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통속적’ 사용을 위한 민간 시가지도들 역시 당시 실측되어 생산되기 시작한 도시 정보들을 모본으로 제작되기 시작한다.

육지의 비밀 측량은 소수 간첩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지역민들의 저항 역시 심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실측이 수월하고 지도 제작의 중요성이 큰 주요 도시들의 부분도들이 가장 먼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한성(경성)의 경우 1882년 서울에서 활동하던 간첩대가 현지 답사와 간측으로 1:40,000 축척의 ‘조선경성도’를 완성하였으며 임오군란 직후에는 실제 측량이 가능해져 1883년에 축척 1:10,000의 ‘조선국경성지약도’¹⁷와 1:20,000의 ‘한성근방도(그림 2-1)’가 작성되었다. 목측(目測)이나 평판측량에 의하여 지도들이 제작된 만큼 측량 기법 상의 한계나, 군사적 이용이라는 목적 상의 이유 때문에 도시 정보가 시가지의 개략적 형태, 주요 교통망, 지형, 주요 시설 등에 한정지어 도시를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측량 상의 경향성은 1890년대에 측량되어 한반도 전도로 제작된 1:50,000 축척의 ‘조선약도(朝鮮略圖,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그림 2-2>은 1996년에 발간된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의 한성(漢城) 도엽으로 측량시기인 1890년대의 한성부 일대의 지형지물과 도시를 표현하고 있다. 도시는 건물군의 집합으로 간략화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범례에서 행정경계인 도계와 군계, 그리고 도로(道路),

¹⁶ 남영우, 2007, p.28

¹⁷ 조선국경성지약도(朝鮮國京城之略圖)의 경우 당시 발행되었던 잡지인 조선(朝鮮)의 昭和 14(1939) 10월호에 실린 명치연간(明治年間) 조선관계문헌초록(朝鮮關係文獻抄錄)의 조선지도(朝鮮地圖) 편에서 도엽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국가기록원 자료의 해상도 상의 한계로 도엽의 이미지를 자세히 분석할 수 없었다. 시가지를 도로와 검게 채색된 건물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한성근방도 부분, 1883, 1:20,000
(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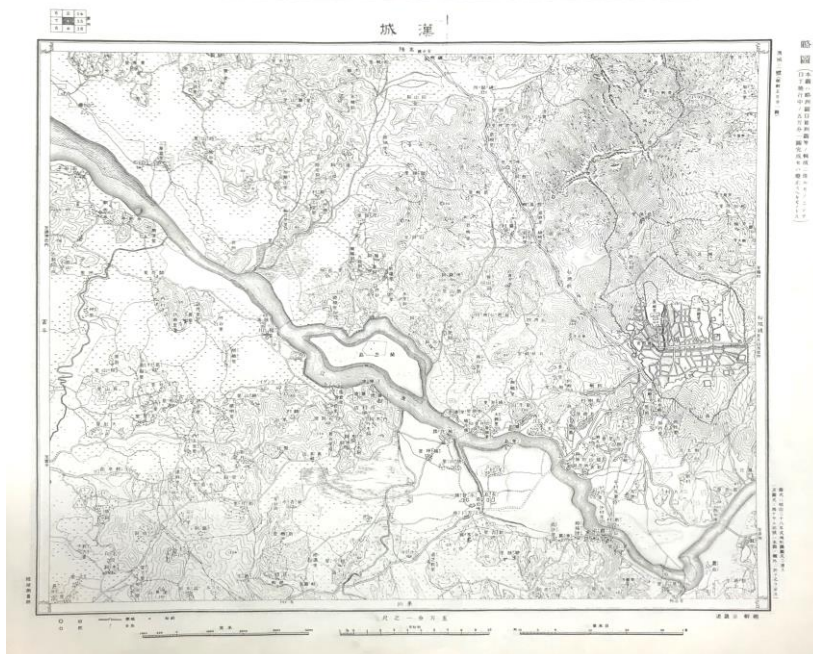


그림 1-2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 한성, 1996, 1:50,000
(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로(聯路), 간로(間路) 역(驛) 등의 교통로, 관문(關門), 봉수대(烽燧臺), 병영(兵營) 등의 군사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를 제작할 당시에 1:10,000 이상의 대축척 측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측되나, 본 지도의 축척의 한계상 도시의 세밀한 가구들까지는 표현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 정보들 역시 본래의 형태들로 재현되지 않고 도식으로 환원되어 있다.

그 이후의 1:10,000 축척 이상의 대축척으로 제작된 경성의 실측도에 대해서는 1904년 11월 육군참모본부의 명에 따라 육지측량부 측량사와 측량기사가 서울에 파견되어 축척 1:5,000과 1:1,200 지도를 완성하였다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1904년 한일의정서가 강제 체결된 이후였기에 종전과 달리 한국주둔군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시가지를 측량하였다. 선행 연구 상 1904년 12월 20일 ~ 1905년 1월 6일과 1904년 12월 21일 ~ 1905년 1월 28일에 지도를 각기 완성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당시의 실측을 통하여 제작된 지도는 언급되지는 않는다.¹⁸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주둔군사령부에서 1906년에 제작한 1:5,000 축척의 ‘한국경성전도’가 제작 주체와 축척을 미루어봤을 때 당시 측량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로 추측된다.

‘한국경성전도’는 이전의 지도들과 달리 건물군을 재현하지 않고 도로망과 , 대축척에 맞게 시가지 내의 소로(小路)들까지 상세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의 범례에는 교통 인프라인 철도와 전차의 선로, 행정경계인 방계(坊界)와 서계(署界), 성벽, 천(川), 못(池) 등의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건물명들과 방명(坊名) 등의 텍스트가 기입되어 있어 도시의 위치 정보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후에 4장에서 살펴볼 1900~1910년대의 민간 시가도들과 매우 유사한 도시 재현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지도가 당시에 일반 시민들을 위하여 발간되었는 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도시 정보들이 당시 측량

¹⁸ 남영우, 2007, p.25



그림 2-3 한국경성전도, 1905, 1:5,000, 124.1 x 124.7cm
(출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되어 지도로 생산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통치 목적의 측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10년 한일합방 이후부터이다. 한일합방 직후 일제는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을 개설하고 한반도 전역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한다. 이는 첫째로 토지 소유관과 지적을 분명히 하고 매매를 촉진하며 지조(地租)를 정하고, 둘째로 주둔지 등을 공유지로 확보하고 일본국 척식민(拓植民)에게 제공하고 삼림과 광산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며, 셋째로 기존의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총독정치 산하의 지방단체에 사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착시키기 위함이었다.¹⁹ 이로 인하여 지도 제작이 먼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최초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삼각측량과 도근측량이 시행되었다. 첫번째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립하여 일본인들의 토지의 취득과 매매, 즉 토지의 상품적 가치를 공고히하고, 이를 통하여 통치를 위한 세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때문에 필지 당 토지소유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발생하지도 못할 토지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적 측량과 함께 지형 측량이 시행된 것이었으며 측량업무는 1910~1915년에 걸쳐 단기간에 종료되었다.²⁰

대삼각측량과 소삼각측량을 통하여 당시 제작된 지형도는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도로 사용된 1:50,000 축척의 지형도가 724개 도엽, 주요 도시 부근의 축척 1:25,000의 지형도가 144개 도엽,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 45개소를 대상으로 축척 1:10,000 지형도가 54개 도엽, 특수한 지역은 축척 1:5,000 의 지형도가 3개 도엽 제작되었다.²¹ 경성의 경우 1:50,000과 1:25,000, 1:10,000 축척의 지형도가 모두 제작되었다. 각 축척의 지도의 제작 목적이 육지측량부발행지도목록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데, 각종 사업의 시설 및 기타 특별한 목적에는 1:10,000 축척이나

¹⁹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도학발달사, 2009, p.332

²⁰ Ibid., p.333

²¹ 리진호, 1996, p.735



그림 2-4 오만분지일지형도 - 경성, 1917, 1:50,000
(출처: 종로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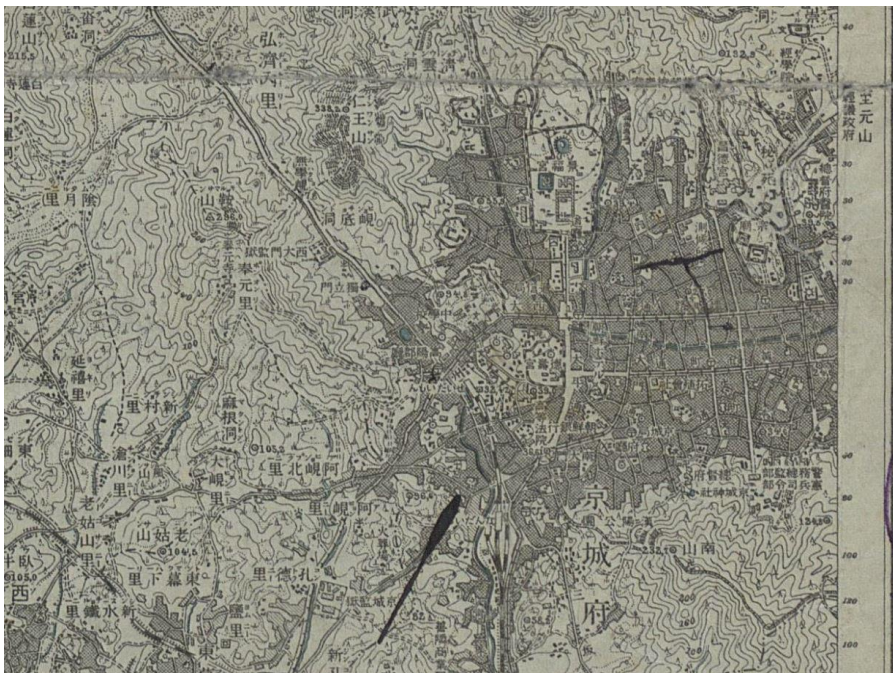


그림 2-5 오만분지일지형도 - 경성 부분 확대 이미지

1:25,000 축척의 지형도를, 지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한 지역을 여행할 목적으로는 1:50,000 지형도를, 일반여행이나 토지를 광범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100,000, 1:200,000, 1:500,000 축척의 지형도를 이용하도록 설명하고 있다.²² 이처럼 지도는 한반도의 통치 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로 지도의 저작권은 조선총독부에게 있었지만 육지측량부에서 인쇄 및 발행하여 각 도시의 민간 대리점에서 판매되었다.²³

〈그림 2-4〉은 大正7년(1918) 측도되어 동년 제판되어, 大正8년(1919)년 인쇄 및 발행된 1:50,000 축척의 경성 도엽이다. 〈그림 2-5〉의 확대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 정보의 양과 정밀함이 이전의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어있다. 먼저 도엽을 살펴보면, 도시의 형태를 느슨히 규정하고 있던 건물군의 형태 뿐만 아니라 몇몇의 주요 건축물들의 윤곽까지 재현되어있어 도시의 물리적 형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변경된 정(町)과 주요 도로 등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범례 역시 교통시설과 군사시설에 집중되어 있던 이전 시기의 지형도와 달리 부청, 영사관, 부군청, 면사무소, 경무국, 우편소, 학교, 병원 등의 도시 내 시설들이 부호로 표기되어 있으며, 다리 등의 각종 토목시설과 토지의 지류 등이 면밀하게 조사되어 도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대규모의 측량을 통하여 생산된 새로운 지형지물 정보가 지도 위에 등장한 것이다.

새로이 생산된 도시 정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를 재현하고 있는 가는 1:10,000 축척의 지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축척에 따라 기입된 정보의 양과 종류의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도의 특성 상 이 ‘일만분지일지형도’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먼저 당시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가장 큰 축척의 경성 실측 지형도이기에 도시 정보의 양과 정밀함이

²² 陸地測量部發行地圖目錄：昭和6年9月現在(육지측량부발행지도목록: 쇼와6년9월현재), 육지측량부, 1931, p.2~3

²³ Ibid., 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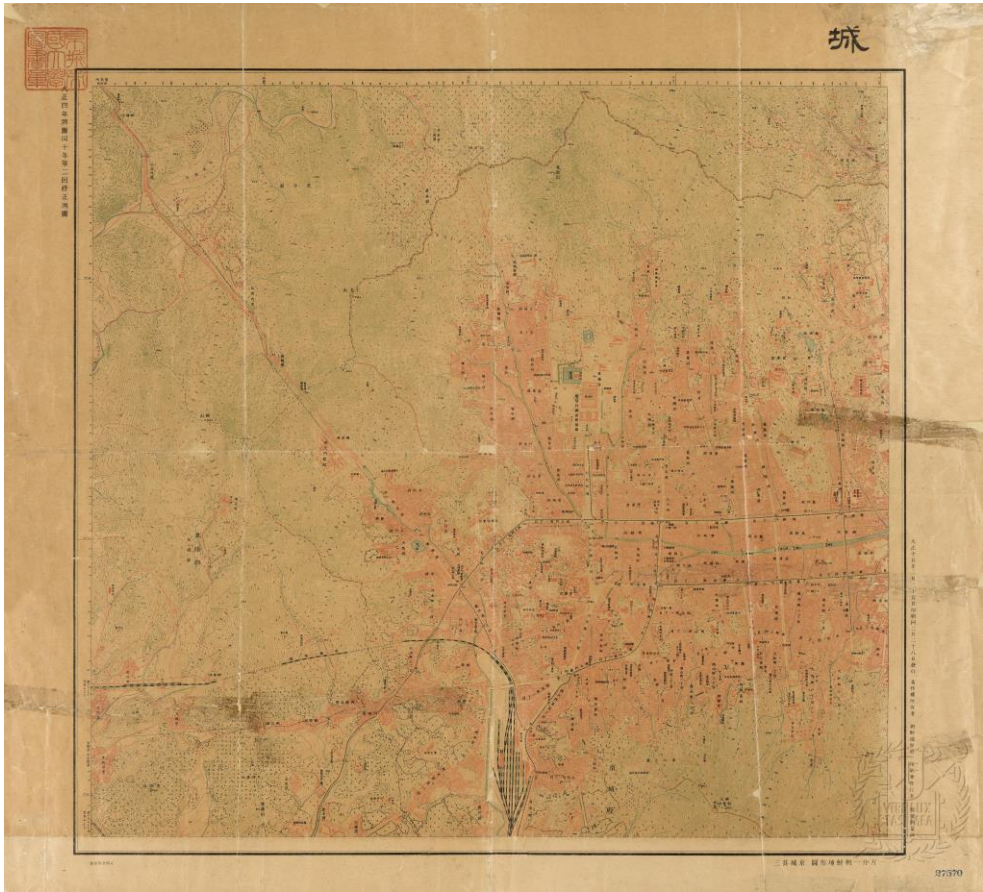


그림 2-6 일반분지일지형도 - 경성 3번 도엽, 1926
(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림 2-7 일반분지일지형도 - 경성 3번 도엽 부분 확대 이미지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리고 후에 자세히 다룰 민간 시가도들과 가장 비슷한 축척의 지도로서 이들과 도시 정보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2-6〉는 大正4년(1915년) 측도한 지도를 大正10년(1921년)에 제 2회 수정측도한 후 大正15년(1926년) 발행한 판본이다. 당시 발행된 일만분지일지형도의 경성 부분은 1917년 초판을 제외하고(초판은 2개 도엽) 4개의 도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림 2-6〉는 3번 도엽이다. 大正15년(1926년) 인쇄 및 발행되었으며 저작권소유자는 조선총독부며, 인쇄 겸 발행자는 육지측량부이다.

시가지를 재현하고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먼저 저명건물들은 건물 자체의 윤곽선으로, 도시의 일반 건물들은 건물군으로 재현되어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림 2-7〉 도엽의 확대 이미지를 보면 오늘날 서울 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덕수궁의 전각들과 조선히otel, 상업회의소, 경성일보사 등의 시설들이 본래의 건물 윤곽을 따라 재현되어 있으며, 시가지의 일반 건물군보다 진한 붉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저명 건물의 형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부속 건물들과 담장까지 재현되어 1:10,000 축척 정도의 대축척지도에서만 가능한 정밀도를 보여준다. 시가지의 일반 건물군, 가구(街區)의 재현 방식을 살펴보면, 그리고 저명 건물들과 주요 도로에는 각각 건물명과 도로명이 기입되어 있으며, 정동 경계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정동의 이름이 기입되어 도시 내 위치 정보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도식화된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례(그림 2-8)를 살펴보면, ‘오만분지일 지형도’와 같은 종류의 지형지물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 실측한 정보의 종류는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축척 상의 한계로 주요 시설들의 위치만이 표현되어 있는 ‘오만분지일 지형도’와 달리, 정밀도가 더 높은 ‘일만분지일 지형도’가 더 세밀하게 도시를 재현하여 더 많은 양의 도시 정보를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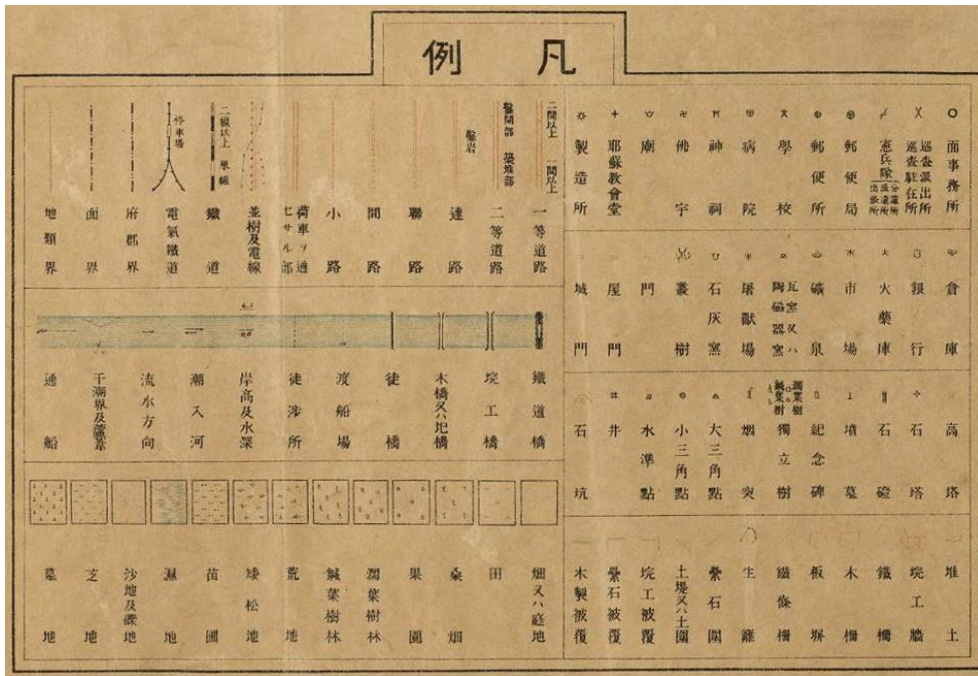


그림 2-8 일만분지일지형도 범례 - 경성 2번 도엽의 일부, 1926
(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분 류	범례 내 도시 정보
건물정보	면사무소(面事務所), 순사파출소(巡査派出所), 순사주재소(巡査駐在所) 우편국(郵便局), 우편소(郵便所), 학교(學校), 병원(病院), 신사(神社) 포함 23개 도식
지물정보	옥문(屋門), 성문(城門), 고탑(高塔), 석탑(石塔), 독립수(獨立樹), 소삼각점(小三角點), 우물(井) 포함 27개 도식
교통시설	일등도로(一等道路), 이등도로(二等道路), 달로(達路) 등 도로, 철도(鐵道), 전기철도(電氣鐵道) (정류소 및 역 포함)
행정경계	부군계(府郡界), 면계(面界)
수 계	철도교(鐵道橋), 완공교(堤工橋) 등 교각, 도선장(渡船場), 도섭소(徒涉所), 유수방향(流水方向) 포함 11개 도식
지 류	지류계(地類界), 밭(田), 상전(桑畑), 과원(果園) 포함 14개 도식

표 2-2 일만분지일 지형도(1926) 범례 분류

이후로 육지측량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제작한 지형도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계속된 개측을 통하여 지형도를 개수해나갔다. ‘일만분지일 지형도’의 경우 1917년에 초판 인쇄된 후 계속된 수정 측도에 따라서 1918, 1921, 1926년에 새로이 수정본이 계속 발행되었다.²⁴

2.2. 지적 측량 : 토지 정보 재현의 역사

토지 정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뜻하며, 지적측량과 지적도는 토지에 대한 물권을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공시된 물권을 현지에 복원함으로써 관념적인 소유권을 실제적으로 특정화하여 물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²⁵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 탁지부 내에 토지조사인 양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미국인 측량기사를 초청하여 측량 기술을 도입하면서 서울의 근대적 지적측량이 시작되었지만, 1904년에 한일협약 이후 일본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고, 1905년의 을사늑약과 1906년의 통감부가 설치 이후 일제의 주도하에 진행되게 된다.²⁶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울의 정밀 측량 지적도는 1:500 축척의 ‘한성부 지적도’인데 이 역시 대한제국의 임시재산정리국에서 한성부 내 국유지를 대상으로 한 측량 실습의 결과물이며, 토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10년 무렵 각 관청의 요청에 따라 당시의 행정단위인 방별로 제작된 지적도의 일종이다.²⁷ 때문에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고 정밀한 일필지

²⁴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지도』. 예맥출판사. 2006. p.223

²⁵ 김영수, 지종덕. 지적측량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1), 2011, p.95

²⁶ 한성부지적도 - 서울 지도의 근대화와 근대 서울의 이력서. 양보경, 김종근. 한성부지적도. 서울역사박물관. 2015. p. 186

²⁷ 반도미야, 대한제국기의 토지조사와 지도제작에 관한 고찰 - 한성부 대축척 실측도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제52호, 2008, p. 70

측량을 통하여 한반도 전체의 지적도가 완성된 토지조사사업에 이르러서야 근대적 측량에 의한, 실제로 제도적인 효력을 가진 지적도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1912년 8월 13일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 제 2조에 의하여 토지는 종류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번지가 부여되었으며, 지주들은 일정한 기간 내 소유한 토지의 관련 서류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에서 토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²⁸ 이러한 법적제정과 함께 일필지측량을 통하여 지적도가 제작되었다.

토지조사사업보고서에 따르면²⁹ 토지조사가 끝난 토지의 경계를 측정하고, 원도를 조제하여 지적도 주제의 근본으로 삼기 위해서 일필지측량을 시행하였으며, 지적원도에는 지목, 지번, 소유자명을 기입하여 제작하였다. 축척은 시가지와 같이 정밀하게 경계를 나타내고 면적을 산출해야하는 지역에는 1:600을, 서북부지방과 같이 일필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구역에는 1:2,400을 사용하였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는 1:1,200을 사용하여 총 3종을 사용하였으며 경성부의 경우 모두 1:600으로 제작되었다.³⁰

또한 원도의 정리가 끝난 이후에는 원도 상호의 접속관계를 분명히하고 토지의 색출에 편리하도록 일람도를 만들어 첨부하였는데, 축척 1:600 지역에서는 1:12,000의 축척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경성부의 지적도일람도는 1:12,000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¹ 그리고 기입된 정보들을 살펴보면 원도구획, 동리의 경계, 원도 각 도엽의 번호와 각 원도에 포용된 처음과 끝의 지번, 행정구역의 경계 및 인접행정구역의 명칭과 종횡선의 유치 등을 기입하고 지목병칠 수, 소용축척, 원도부수,

²⁸ 송혜영. 일제강점기 지적공부의 작성과 의미, 건축역사연구, 제27권 2호 통권117호, 2018, p. 33

²⁹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지반측량편,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편, 건설부 국립지리원 역, 국립지리원, 1981, p.72

³⁰ Ibid.,

³¹ 국립지리원, 1981,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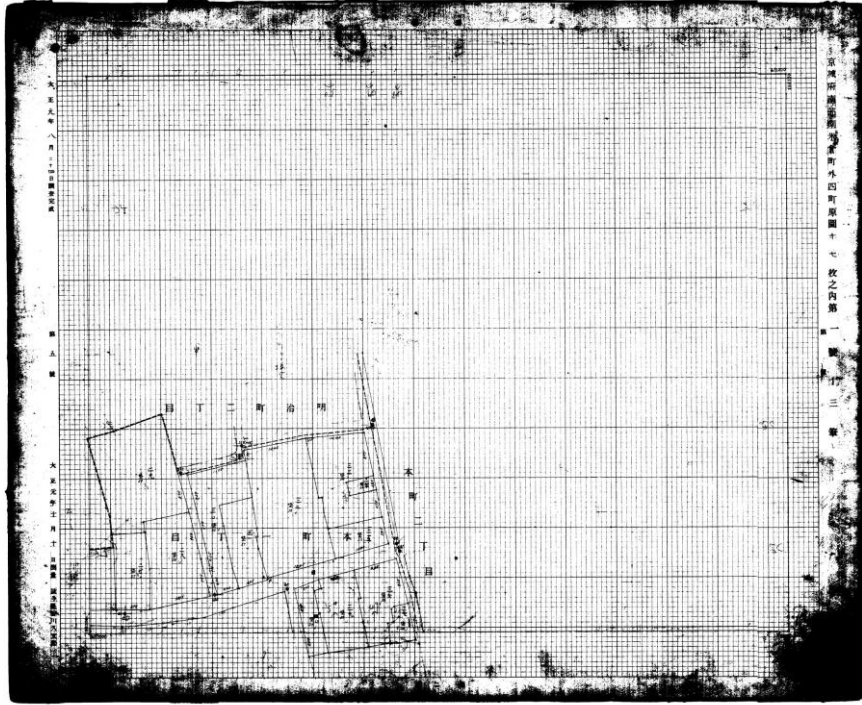


그림 2-9 지적원도 - 경성부 남부 남미청정 외 4정, 1913
 (출처: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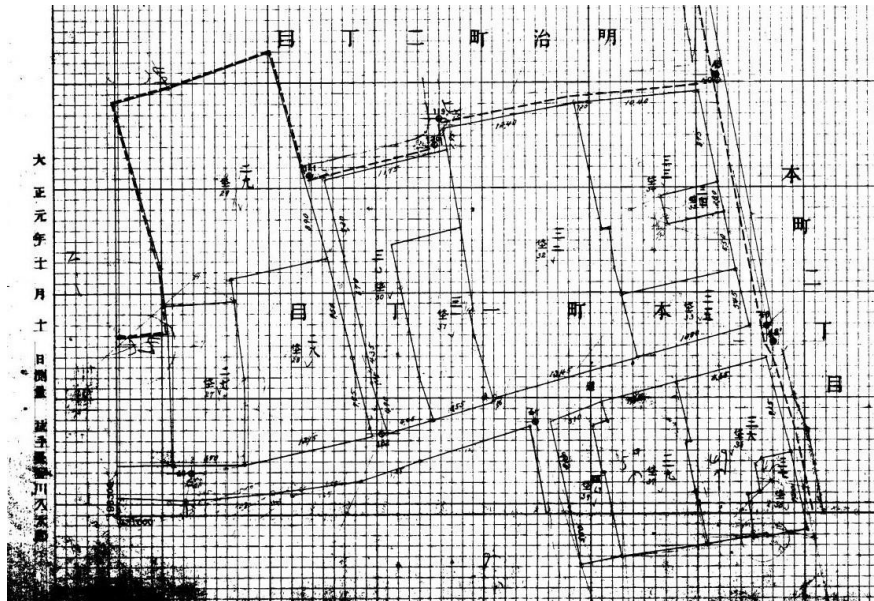


그림 2-10 지적원도 - 경성부 남부 남미청정 외 4정 부분 확대 이미지

측량년월일 및 관계직원의 관등 성명이 지도 상에 부기되었다.³²

〈그림 2-9〉는 경기도 경성부 남부 남미청정 외 4정의 지적 원도로, 토지정보들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³² 국립지리원, 1981, p.86

3. 도시 정보의 확산과 시가지도에의 영향

3장에서는 앞서 시대 순으로 분석하였던 측량에 의해 생산된 도시 정보들이 시가지도에 확산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일합병 직후 일제에 의하여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으로 경성을 포함하여 전국에 걸친 지형 측량과 지적 측량이 이루어졌으며, 한반도의 통치로 측량의 목적이 변화하고, 근대적 정밀 측량 기술들이 사용되며, 토지에 대한 제반 법령들이 정비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물리 정보와 토지 정보가 생산되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을 기준으로 전후의 민간시가지도의 도시 재현 방식을 분석하여 새로운 측량이라는 지도학 내적 요인이 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 지를 살펴본다.

3.1.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경성 시가지도

실측 이전에는 조선시대 후기의 도성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제국에서 제작된 지도나 일본인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들 모두에서 보이는 특성이다. 일례로 1884년에 제작된 조선여지도 내에 첩도로 들어간 경성이나 경성부근지도를 보면 지형을 회화식이 아닌, 당시 서구에서 전해진 우모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만 제외하면 도시를 원형에 가깝게 표

현하고 있으며 성곽과 궁궐의 대문을 입면으로 표현하는 등 전형적인 조선 후기 도성도와 같은 재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이 지도들이 조선 후기의 지도들을 모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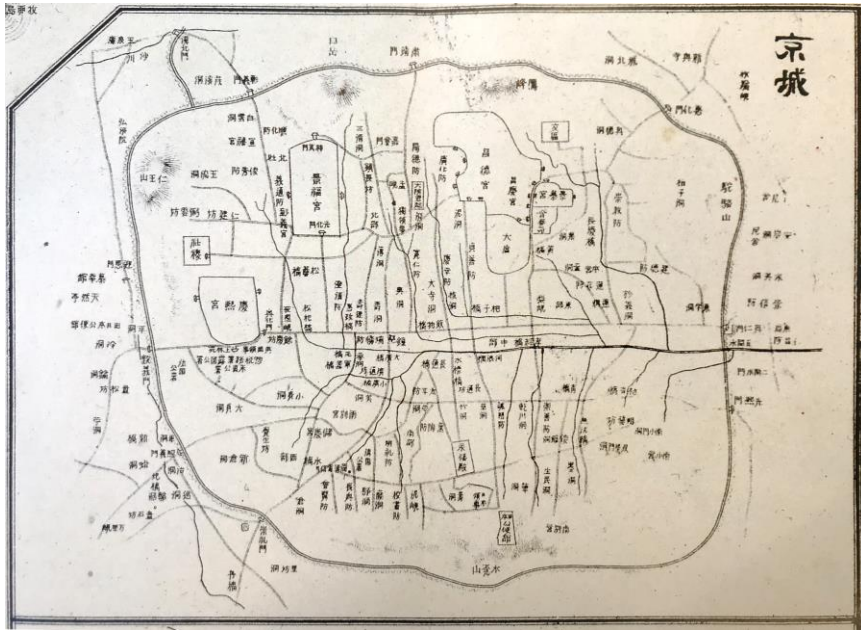


그림 3-1 경성 (조선여지도), 1884, 10.7 x 15.2cm
(출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하지만 근대적 측량이 시작되면서 전근대 시대의 고지도들과 같이 지리정보와 인문사회정보를 표현하는데 있어 부분간의 관계를 개념적인 관계성에 기초하여 재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도상의 부분들의 관계를 과학적인 측량 아래 거리라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척도를 통해 재현하는, 데카르트 좌표계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³³

민간에서 제작한 지도 중 근대적 실측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도는 민자회사였던 경부철도주식회사가 1903년에 제작한 1:10,000 축척의 ‘한국경성전도(그림 3-2)’이다. 그렇다면 본 지도는

³³ 안창모. 근대지도로 읽는 서울 - 한양, 경성, 서울의 삶과 도시변화(서울 지도). 서울역사 박물관. 2006. p.192

1904~1905년 측량보다 이른 시기에 시행된 측량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인데, 지도에는 판권 소유에 대한 정보뿐이며 측량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1890년대 후반에 육군 간첩대에 의하여 측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⁴ 1907년에 일한서방에서 발행한 ‘실측상밀 최신경성정도’는 이 지도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 시가지의 형태가 현실의 지형 지물의 형상에 가깝게 재현되어 있으며, 도로와 수계의 형상 역시 더욱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근대적 실측에 의한 도시의 물리적 정보가 생산되어 민간 시가지도의 도시 재현 방식이 변화하는, 지도학 내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형 지물에 대한 도시의 물리정보, 지형 측량을 통하여 생산된 정보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상의 도시 재현 방식을 살펴보면 상단에 첨부된 부산과 대구의 시가지 지도와 경성의 시가지 지도가 다른데, 부산과 대구의 경우 시가지의 건물군들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반면 경성의 경우 건물군의 재현은 드러나지 않고 시가지가 도로망의 형태로 재현되어 있다. 이는 범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인가(人家)가 범례에 포함되어 있지만 성 밖의 민가들을 표현하는 정도에 그치고 성 안의 가옥 밀집 지역은 도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가장 상세한 정보는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 시설이며, 도로의 형태와 각 행정구역의 이름, 텍스트가 도시의 위치 정보를 형성하고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지도들 역시 기본적인 도시 재현 방식은 이전의 ‘한국경성전도(1903)’나 ‘한국경성전도(1906)’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경성시가전도(1910), 경성용산도(1910, 조선교통전도 부분삽도),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1911)은 일본인들에 의하여 용산이 개발되면서 지도의 범위 상의 변화가 발생한 것 이외에 비슷한 도시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방식의 도시 재현 방식으로 경성의 시가지를 표현해내고 있다.

³⁴ 남영우. 1992. p.93



그림 3-2 한국경성전도, 1903, 1:10,000,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분 류	범례 내 도시 정보
건물정보	인가(人家)
교통시설	도로(道路), 전기철도(電氣鐵道), 경인철도(京仁鐵道),
행정경계	서계(署界), 방계(坊界)
지물정보	성벽(城壁), 밭(畑), 수목(樹木)
지형정보	산악(山岳), 연못(池)
계획노선	경부철도예정선로(京釜鐵道豫定線路)

표 3-1 한국경성전도(1903) 범례 분류

이는 토지조사사업의 성과로 지형도와 지적도가 제작되고 발행된 1918년 이전의 지도들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인데, 이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에 도시 재현 방식을 변화시킬 만한 지도학 내적 요인의 작용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1910년대 중반까지 제작되는 지도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이러한 재현 방식을 선택하였는 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저본이 되는 지도들에서 같은 도시 정보를 선택하여 같은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도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성부시가강계도(1914)’, ‘경성부명세신지도(1914)’, ‘경성부관내도(1917)’가 대표적으로,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동명 및 경계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도시 정보들과 도시 재현 방식은 동일하다.

〈그림 3-3〉은 1914년 6월에 십자옥에서 발행한 축척 1:10,000의 ‘경성부시가강계도’이며 1914년에 5월에 처음 발행된 것을 1914년 6월에 수정한 판본이다. 새로운 행정구역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의 교열을 거쳐 인쇄되었고, 따라서 당시의 행정구역의 변화상을 담고 있다.³⁵ 조선총독부는 1914년 4월 1일 경성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의 부(部), 방(坊), 계(契), 동(洞) 제도를 폐지하고 동(洞), 정(町), 통(通), 정목(丁目)이라는 새로운 일본식 말단행구역을 신설하여 총 186개의 동, 정, 통, 정목을 설치하였다.³⁶ 이러한 지도학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도시 정보상의 변화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재현 방식은 ‘한국경성정도(1903)’이나 1910년대 초반에 발행된 지도들과 같다.

〈표 3-2〉에 있는 범례 상의 도시 정보를 살펴보면, 행정구역 개편 직후에 나온 지도인 만큼 개정정명(改正町名)이나 개정정경계(改正町境界) 등 변화된 도시 행정 정보들이 특별히 추가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철도, 전차선로, 도로 등 교통 시설이 도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점, 지물이나 지형 정보의 종류가 동일하게 한정적인 점, 시가지의 건물이나 건물군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지도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³⁵ 서울역사박물관, 2006, p.222

³⁶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04, p.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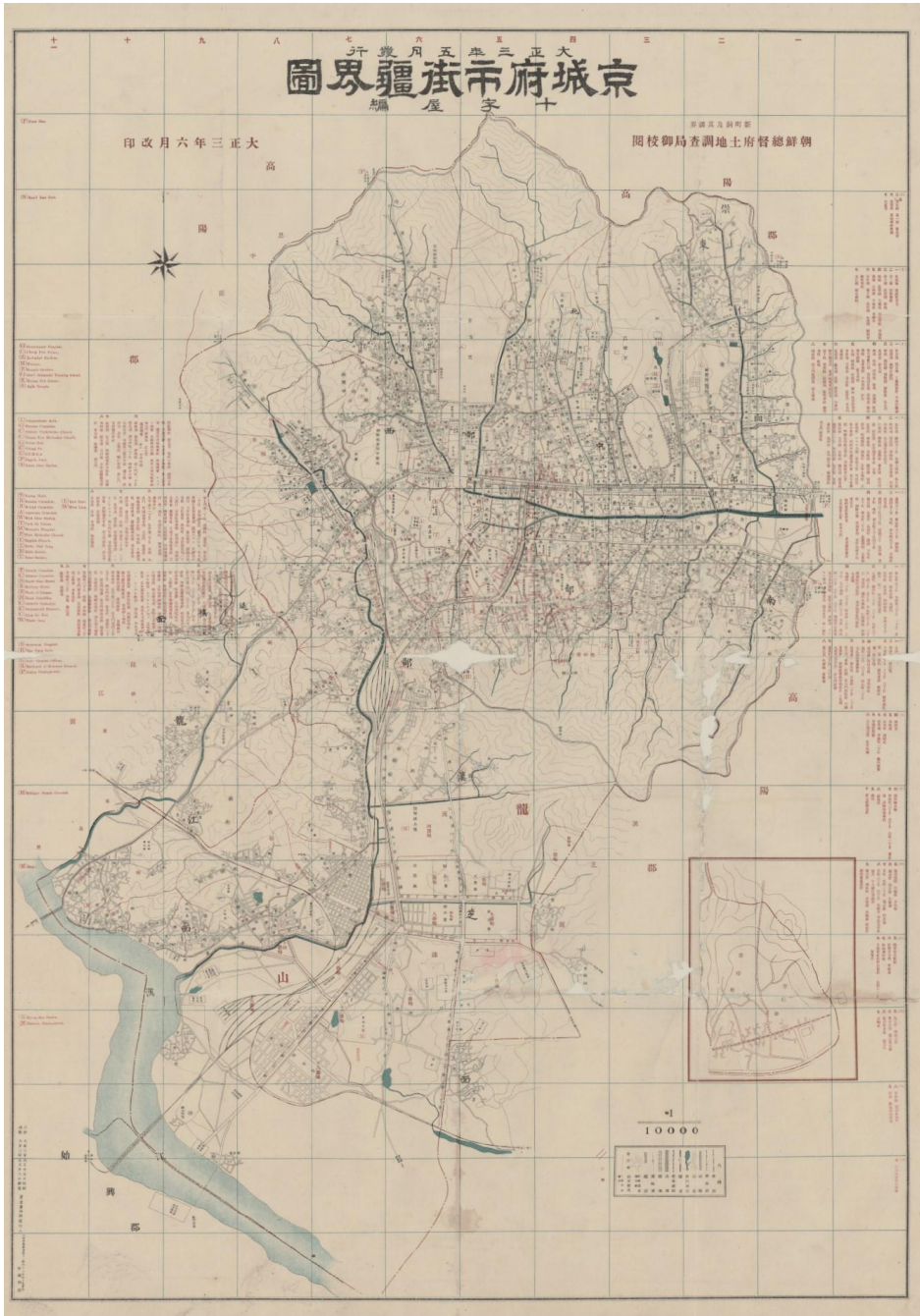


그림 3-3 경성부시가강계도, 1914, 1:10,000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분 류	범례 내 도시 정보
행정정보	개정정명(改正町名)
교통시설	철도(鐵道), 전차선로(電車線路), 도선장(渡船場)
행정경계	군계(郡界), 부면계(府面界), 개정정경계(改正町境界)
지물정보	성벽(城壁), 주교(舟橋), 철교(鐵橋), 교량(橋梁)
지형정보	산악(山岳), 하천택소(河川池沼)
계획노선	개수도로예정선(改修道路豫定線)

표 3-2 경성부시가강계도(1914) 범례 분류

3.2. 토지조사사업 이후의 경성 시가지도

2장에서 확인하였듯이 토지조사사업 이후로 새로운 지형도와 지적도가 제작되면서 도시의 물리적 정보와 토지 정보가 지형도와 지적도의 형태로 새로이 재현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 정보의 생산, 지도학 내적 요인의 변화는 이후의 민간 시가지도들의 도시 재현 방식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먼저 지형도의 경우, ‘일만분지리지형도(그림 2-6)’와 같이 당시 제작된 대축척 지형도에서 재현되기 시작한 시가지의 주요 건축물들과 일반 건물군의 형태, 그리고 건물 정보에 대한 도식들이 시가지도에 등장한다. 그리고 지적도의 경우, 지적원도(그림 2-9)에 기재되었던 지번이 시가지의 위치 정보, 주소로서 시가지도의 주요 토지 정보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정보를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이 다변화되어, 이 시기의 시가지도들은 이전에 비하여 다양한 양상의 도시 재현 방식을 보여준다.

‘경성시가도’³⁷는 토지조사사업 직후 토지조사사업의 주체였던 조선총독부

³⁷ 일제강점기 동안 동일한 이름의 지도들이 발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조선총독부 저작권 소유의 ‘경성시가도’를 의미한다. ‘경성시가도’는 1918년에 처음 제작되었으며 필자의 조사로 1923년, 1927년, 1933년에 보충, 수정되어 재판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도판을 확인할 수 있었던 판본은 1927년과 1933년

임시토지조사국과 육지측량부에서 1918년부터 발행한 지도이며, 때문에 측량의 성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시가지도이다. 본 지도의 소유권은 조선총독부에 있었지만 인쇄는 조선인쇄주식회사에서, 판매는 허가된 민간 대리점에서 되었기 때문에 민간 시가지 지도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보고서추록³⁸에 제작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지형도와 지적도에서 도시 정보를 선택하고 재구성하여 제작한 지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시가지도’는 시가지의 모든 지물을 망라하는 ‘일만분지일지형도’에 비해 보다 통속적인 사용에 적합한 지도에 대한 필요때문에 제작되었다. ‘일만분지일지형도’를 저본으로 축척을 1:7,500으로 확대하였으며, 지형지물을 간략화하여 가구와 도로를 더욱 명료히 하고, 지번과 정리동(町里洞) 경계를 기입, 그리고 색인의 편리성을 위하여 지도에 방안선을 표현하고 도시 내 주요 관청, 회사를 포함하는 방안 색인표를 제작하여 도곽 밖에 기입하였다. 여기서 정리동의 행정경계와 지번은 모두 지적원도를 따른 정보들이다. 그리고 사대문 안의 시가지를 집중하여 보여주는 ‘경성시가지도’와 용산의 시가지를 집중하여 보여주는 ‘용산시가지도’로 나누어서 제작되었다.

지형지물을 간략화하고 가구와 도로를 명료히 하는 과정, 도시의 물리 정보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저본인 ‘일만분지일지형도’와는 다른 방식의 도시 재현 방식을 보여준다. <그림 3-4>은 초판 인쇄본을 일부 수정하여 1927년에 재발행된 판본이다. ‘일만분지일지형도’와 같이 도시의 주요 건축물들과 일반 건물군의 형태가 상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새로 지어진 지어진 식민양식의 건축물들이나 조선 왕조의 궁궐 전각들과 같은 도시의 주요 건물들과 도시 내의 일반 건물들을 다른 색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의 판본이다.

³⁸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 土地調査事業報告書追録, 大正 8 (1919), p.110 본문의 ‘경성시가지도’의 제작 경위와 방식은 별다른 주석이 없는 경우 모두 본 문헌에서 인용한 정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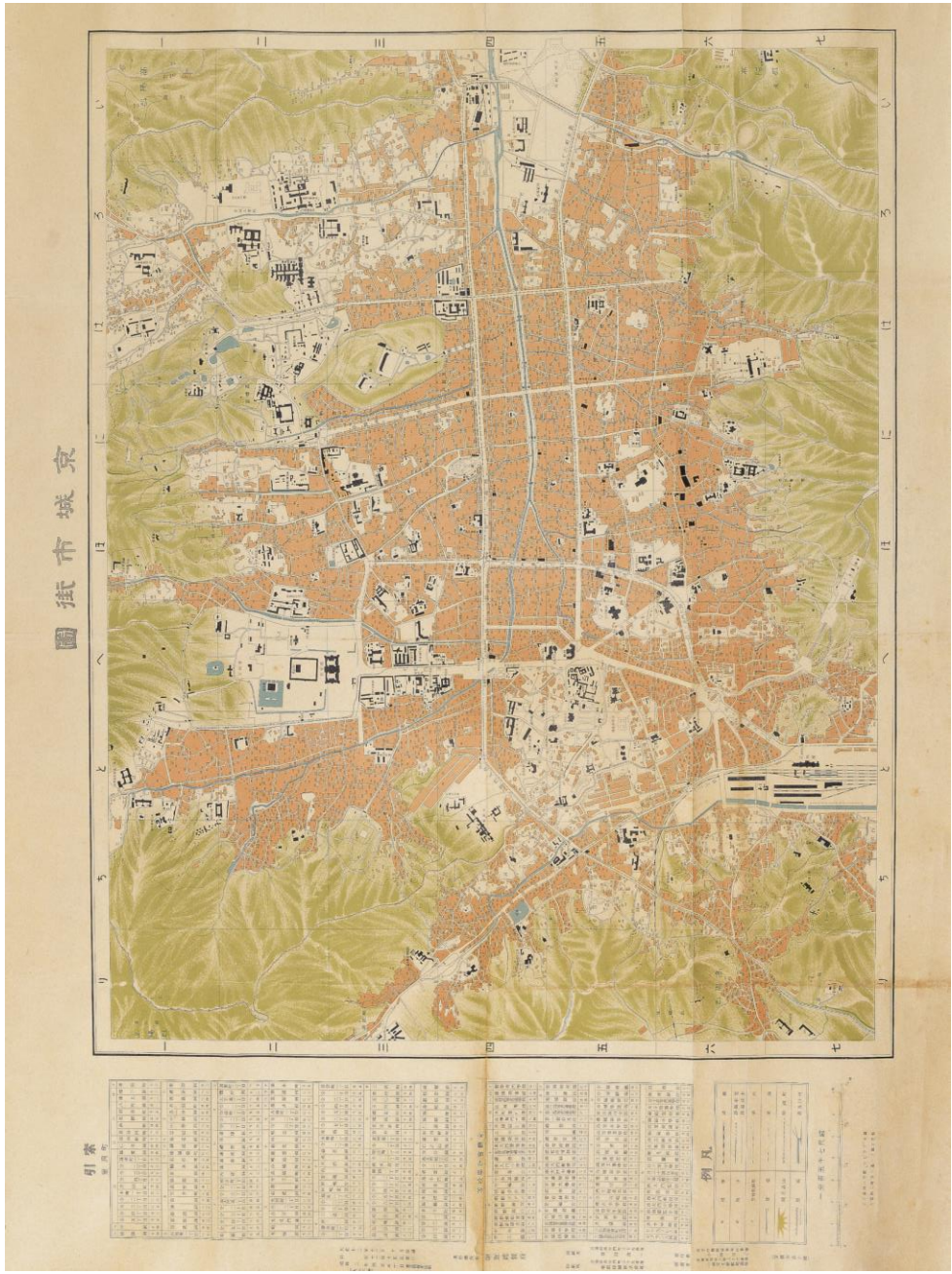


그림 3-4 경성시가도, 1927년(1923년 초판 인쇄), 1:7,500, 100.0 x 95.8cm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범례 상의 건물 정보 도식 역시 학교, 사원, 야소교회당 3개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만분지일지형도’가 23개의 도식을 포함하고 있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주요 건물들에 대한 정보가 방안과 색인표, 그리고 지도 상 건물의 형태가 명세하게 재현되어 있어 건물의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데에 도식에 덜 의존해도 무방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범례의 분류 상의 항목들이나 각 분류의 정보 종류는 오히려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시가지도들과 흡사하다.

분 류	범례 내 도시 정보
행정경계	부계(府界), 면계(面界), 정동계(町洞界)
교통시설	철도(鐵道), 전차선로(電車線路), 미성도로(未成道路)
토목시설	교량(橋梁), 성벽(城壁)
지형정보	산악구륙(山岳丘陵), 하천(河川) 및 연못(池)
건물정보	학교(學校), 사원(寺院), 야소교회당(耶蘇教會堂)

표 3-3 경성시가도(1927) 범례 분류

그리고 범례의 하단에는 지도 상의 아라비아 숫자들이 지번이라는 추가 설명을 기입해 놓았는데, 이후의 시가지도에는 이러한 설명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지번의 개념이 아직 생소한 시기적 상황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연구 범주 내의 지도들 중에서 ‘경성시가도’와 같이 건물군의 형태를 표현하고 주요 개별 건축물들의 형태를 매우 상세히 재현하고 있는 지도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저작권이 조선총독부에 있던 ‘일만분지일지형도’의 도시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가능했기 때문이다. 건물군 형태에 대한 정보가 표현된 지도는 ‘경성도(조선교통전도, 1924)’, ‘경성부관내도(1930년대 후반)’뿐이며 이들 모두 1:25,000 축척의 지도이기 때문에 건물군 형태의 추상화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하지만 주요 건축물의 윤곽을 재현하는 지도들은 다수 등장하는데, 연구 범주 내 목록 지도들 중

‘최신경성전도(1927)’, ‘경성부관내도(1927,1934)’ ‘경성시가전도(1929)’, ‘대경성명세도(1940)’, ‘대경성명세도(1941)’가 이에 해당된다. 이 지도들은 각 지도의 축척에 따라 주요 건축물의 숫자나, 재현의 상세도가 다르지만 모두 건축물의 실제 윤곽 형태가 표현되어 있으며, 일반 도시의 건물군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이전 시대의 지도들과 같이 도로의 집합으로 시가지를 재현하고 있다.

개별 건축물을 표현하는 지도가 다수 등장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정보가 도시의 재현에 있어서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이러한 정보 선택의 양상은 단순 측량 정보의 생산에 의한 변화에 덧붙여 당시의 지도학 외적인 요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1910년대와 20년대에 걸쳐 경성 내 일제 통치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들과 식민양식, 서구의 근대 양식의 건축물들이 활발하게 지어졌고, 도시의 물리적 위계와 경관에 큰 변화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조선은행(1912), 경성우편국(1915), 경성제국대학(1923), 경성역(1925), 경성부청(1926) 등의 도시 내의 주요 시설들이 새로이 지어졌으며,³⁹ 일제 시기 가장 중요한 두 기념비적 건축물인 조선신궁과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각각 1925년과 1926년에 준공되었다. 양식의 측면만이 아닌 이러한 근대적 시설들은 도시민들의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1912년부터 1930년대까지 이어진 당시의 도로망 정비 계획인 시구개수계획과 조용하여 도시의 새로운 물리적 구조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도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17년, 1927년 두 시기의 ‘경성부관내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두 지도 모두 경성부에서 발행된 지도로 1917년 관내도(그림 3-5)는 ‘경성부부세일반’에 부록된 축척 1:16,000의 지도로 뒷면에 표로 ‘경성부부세일반’이 정리되어 있으며, 1927년 관내도(그림 3-6)는 축척 1:15,000의 지도로 ‘경성부부세일반’이라는 제목은 없지만 역시 뒷면에

³⁹ 김백영, 식민권력과 광장공간 - 일제하 서울시내 광장의 형성과 활용. 사회와 역사. 제 90집. 2011. p.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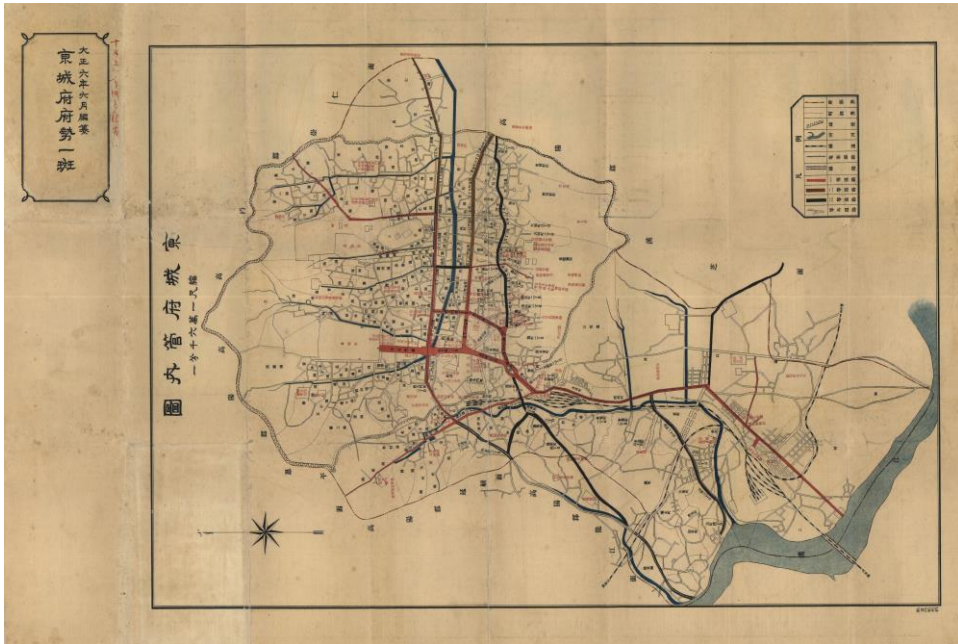


그림 3-5 경성부관내도, 1917, 1:16,000, 78.4 x 54.3cm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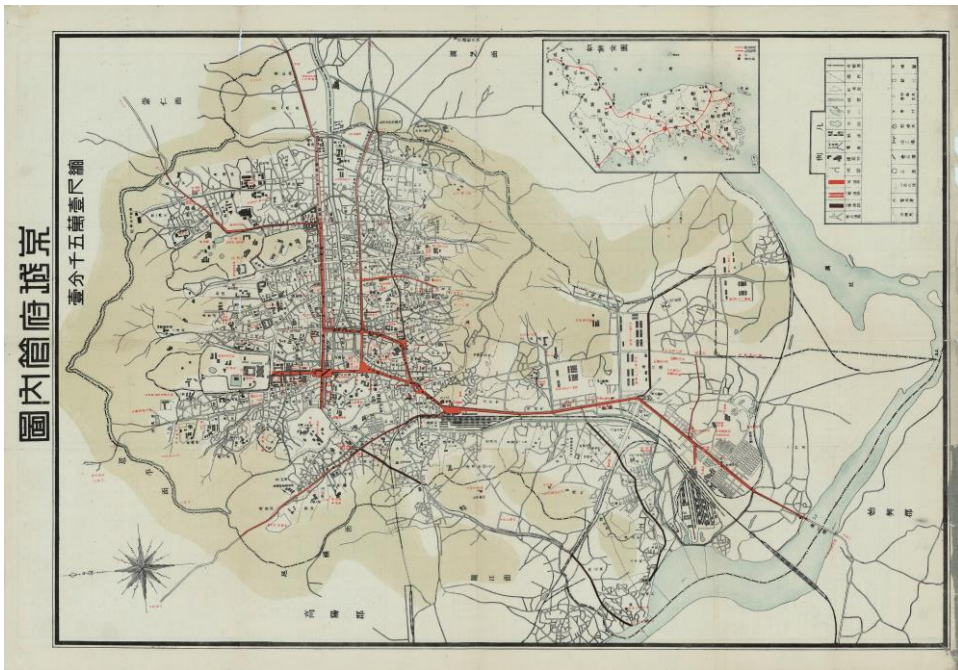


그림 3-6 경성부관내도, 1927, 1:15,000, 78.5 x 54.8cm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1917년의 ‘경성부부세일반’과 같은 양식으로 경성부와 관련된 인구, 교육, 종교, 위생기관, 예산, 주요관공서 현황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다.⁴⁰ 두 지도 모두 유사한 축척과 같은 물리적 범위로, ‘관내도’라는 목적 하에 같은 주체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하지만 1917년의 지도는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민간 시가지도들과 같이 교통망과 행정경계, 건물 및 행정구역의 텍스트로 도시를 재현하고 있는 반면 1927년의 지도는 여기에 더해 시가지 내 주요 건축물들을 각 개별 윤곽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이후에 제작된 민간 시가지도에는 지적도 상의 토지정보인 ‘지번’이 기입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가구에 지번을 적어 넣을 정도로 시가지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대축척 지도들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경성정밀지도(1933)’, ‘지번입대경성정밀도(1940)’이 대표적인 예인데, 두 지도 모두 1:4,000의 대축척으로 경성의 주요 시가지인 도성 내부와 용산을 확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두 지도 모두 지적선은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개별 건축물의 윤곽이나 도시 일반 건물군의 형태적 재현이 아주 추상화되어 있으며 지형도와 같이 도시 내 물리정보들이 범례 상 도식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지형도 상의 정보가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도시 재현에 사용되고 있다.

이 역시 지도학 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전국의 지적 측량이 시행되고 각 필지에 지번이 정해진 이후, 1922년 시행된 ‘조선호적령’에 의하여 지번이 주소로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⁴¹ 때문에 행정구역이나 도로명 이외에도 지번이 건물들의 위치를 검색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었고, 지번이 기입된 지도가 등장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7〉는 ‘경성정밀지도’로 삼중출판사(三重出版社) 경성지점에서 1933년에 발행하였고 저작 겸 발행자는 백천행청(白川行晴)이며 인쇄자는

⁴⁰ 서울역사박물관, 2006, p.223

⁴¹ 송혜영, 2018, p. 37



그림 3-7 경성정밀지도, 1933, 1:4,000, 183 x 113cm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3-8 경성정밀지도 부분 확대 이미지 - 경성부청 근방

전전체장(前田締藏), 인쇄소는 강리구정판인쇄소(江里口精版印刷所)이다. 본 지도는 1:4,000의 대축척 지도임에 비해서 도시의 재현에 사용된 정보나, 범례 상의 정보들의 종류가 간략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가구 내의 주요 시설들의 정보를 건축물의 윤곽이 아닌 시설의 영역과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가구 내에는 지번이 빼곡히 기입되어 있다. 경성정밀지도의 재현 도시 재현 방식은 건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 정보들이 다시 사라지고 교통망과 텍스트로 도시의 위치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지도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재현이 건물의 형태와 같은 물리 정보들보다는 지번이라는 행정 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도시의 위치 정보를 색인하는 데 지번의 효용성이 커져가는, 지도학 외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토지조사사업 이후로는 도시의 대규모 측량으로 생성된 지형도와 지적도 상의 도시 정보들을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한 민간 시가지도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선택과 정보의 재가공에는 지도학 외적 요인들이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시가지도들이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도 제작 방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적 압력이 변화하면서 또 다시 다른 종류의 도시 정보를 통하여 도시를 새롭게 재현하는 지도들이 등장하게 된다.

3.3.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의 제작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地番區劃入大京城精圖, 이하 대경성정도)’는 연구 범주 내 지도들 중 독자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지도이다. 토지조사사업의 이전과 이후의 지도들을 보았을 때 지도들에 기입된 정보들이 다르고 그에 따라 도시 재현 방식이 각기 다를지라도 각기의 재현 방식을 취하는 지도가 다수 등장하지만,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동안 대경성정도와 같은 재현 방식을 가지는 지도는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지도는 경성 지성당(至誠堂)에서 경성부의 교열을 거쳐 발행한 지도이며, 1936년 8월 10일에 인쇄되었고 8월 15일에 발행되었다.⁴² 판권자와 발행인은 반미경평(飯米耕平)이며 지도자는 삼전선당(森田仙堂)이고, 인쇄소는 야진집문당(野津集文堂)이다.⁴³ 지도는 분도들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1:25,000 축척의 일람도(그림 11)와 1:6,000 축척의 13장의 분도로 구성되어 있다.⁴⁴ 당시의 경성부윤이었던 감자의방이 지도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지도는 1936년 4월 1일 고시된 경성부 부역 확장에 따라 변화한 도시의 정보를 담기 위하여 제작되었다.⁴⁵ 당시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하여 경성부의 관할구역은 청량리와 마포, 영등포 등의 경기도 지역을 포함하여 3배 가까이 확장된다. 이와 같이 행정경계의 변화 바로 직후에 제작된 지도에서 기존에 다른 민간 시가지도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도시 재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는 범례와 각 정(町)이 어떤 분도 상에 위치하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정명색인(町名索引) 정보가 담겨있는 표지, 감자의방의 서문 그리고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일람도(이하 일람도)’라는 이름의 전체 분도에 대한 일람도가 순서대로 실려있으며, 그 이후로는 동쪽에서 서쪽 순으로 각 분도가 편집되어 있다. 도시를 하나의 이미지로 재현하는 대신 ‘대경성정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장의 분도로 도시의 형태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분도의 형식을 취한 것은 도시의 확장으로 지도 역시 재현의 범위와 축척에 있어서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9〉는 일람도의 모습으로 보(補)를 포함하면 총 17장의 지도로 붉은 붉은 선으로 표시된 확장된 경성의 전체 행정 구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년에 확정된 새로운 부계(府界)와 각 분도의 위치가 붉은 색으로 가장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다. 일람도의 경우 분도와는 다른

⁴²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 - 5호 분도(출처: 서울역사박물관)의 발행정보를 참조하였다.

⁴³ 서울역사박물관. 2006. p.227

⁴⁴ Ibid.,

⁴⁵ <http://www.seoulstory.kr/front/kor/story/view.do?id=3705>, 2018. 10.12 (서울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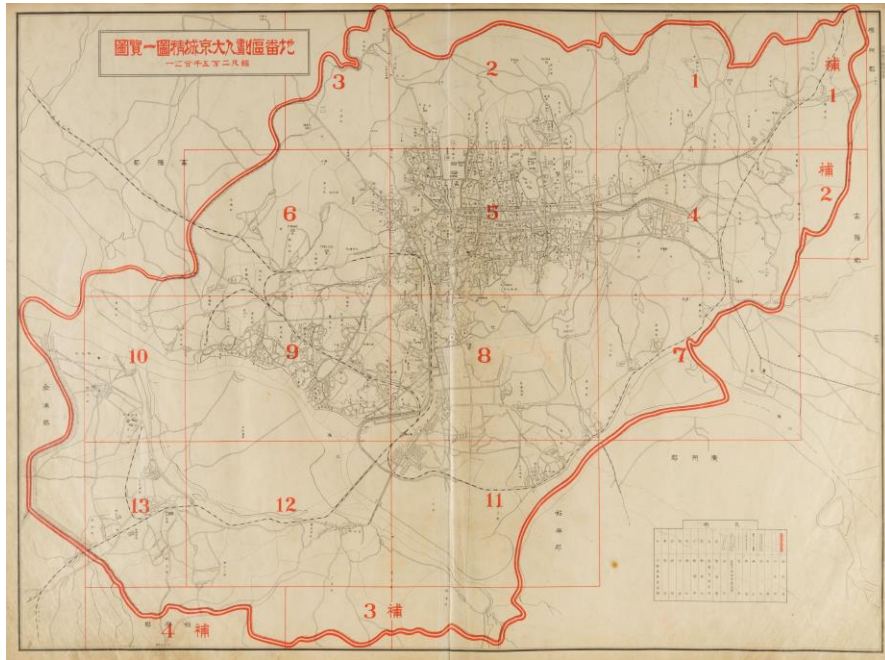


그림 3-9 대경성정도일람도, 1936, 1:25,000, 54.2 x 78.7cm
 (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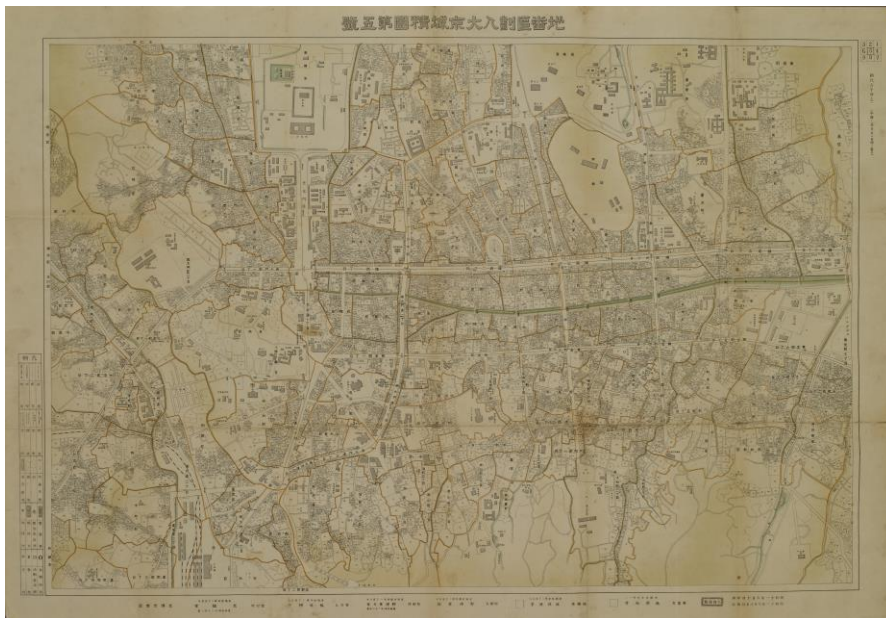


그림 3-10 대경성정도 - 5호 분도, 1936, 1:6,000, 54.2 x 78.7cm
 (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시 재현 방식이 사용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전의 지형도들의 재현 방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일람도가 1:25,000 축척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1:6,000 축척의 분도와 같이 시가지의 세밀한 도시 정보를 표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나, 재현 방식으로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되었던 지형도와 유사한 방식이 선택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조사사업 이후 육지측량부는 1:50,000과 1:10,000 축척 지형도 이외에도 1:25,000 축척 지형도를 계속하여 수정 축도 제작하고, 민간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본 일람도가 육지측량부 발행 지형도를 직접적으로 저본으로 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정보의 가공 방식 역시 다르나 지도 상의 도시 정보와 범례를 살펴보았을 때 기입되어 있는 정보의 종류는 매우 유사하다.

먼저 시가지의 형태를 나타낸 방식을 살펴보면, 도로망과 가구를 통하여 도시의 모습을 그려낸 점이 지형도와 가장 유사한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 내의 주요 건물들 역시 개별 건물의 윤곽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건물 형태를 세밀하게 묘사하기 보다는 사각형과 같은 단순한 형태로 추상화되어 있다. 검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으나 재현하고 있는 개별 건축물의 수가 적고, 가구 역시 따로 채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지의 형태가 강하게 강조되어 드러나지는 않는다. 시가지의 형태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각 분도들의 색인 참조를 돕기 위한 일람도의 특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범례는 육지측량부 발행 지형도와 정보의 종류는 유사하나 도시 정보의 양에서 차이를 보이며, 가옥밀집지대(家屋密集地帶)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변화된 행정경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신부계(新府界)와 구부계(舊府界)가 함께 기입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오히려 토지조사사업 이후의 민간 시가지도들과 유사한 종류와 양의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람도로서 도시의 전반적인 형상을 보여주는, 간략화된 지형도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형도의 도시 재현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도의 정보가 도시 형태 표현의 주를 이루는 분도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같은 도시를 그려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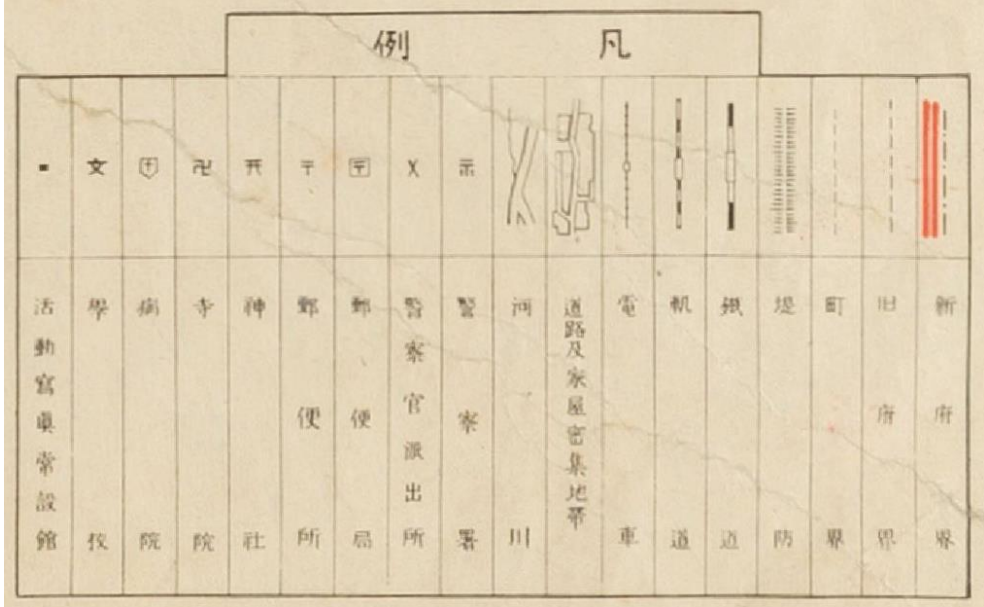


그림 3-11 대경성정도일람도 범례 (대경성정도일람도 부분 이미지)

분 류	범례 내 도시 정보
행정경계	신부계(新府界), 구부계(舊府界), 정계(町界)
교통시설	철도(鐵道), 궤도(軌道), 전차(電車) (정류소 및 역 포함)
토목시설	제방(堤防)
수 계	하천(河川)
건물정보	도로(道路) 및 가옥밀집지대(家屋密集地帶), 경찰서(警察署), 경관파출소(警官派出所) 우편국(郵便局), 우편소(郵便所), 신사(神社), 사원(寺院), 병원(病院), 활동상설관(活動常設館), 학교(學校),

표 3-4 대경성정도일람도 범례 분류

분도들이 담고 있는 도시 정보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각 분도는 경성의 토지의 지번과 구획(지적선)을 전부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 필지의 경계가 명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각 필지의 지번 역시 빠짐없이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각 정(町)의 경계가 붉은 색으로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서문에서 경성부윤 감자의방이 언급한 것과 같이, 가장 정보의 변화가 큰 행정 경계를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저명 건물들의 경우 추상화의 정도가 컸던 일람도보다는 각 건물의 형태적 특징을 표현하고 있지만, 육지측량부 발행 지형도들과 비교해보면 분도 역시 건물 본래의 윤곽이 보다 단순하게 추상화되어 재현되어 있다.

〈그림 3-12〉는 경성부청 근방으로 사대문 안 구시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5번 분도의 확대 이미지이다. 이전의 지도들과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시가지의 형태가 지적선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인데, 때문에 건물군의 형태가 대략적으로 유추될 뿐 정확하게는 표현되지 않는다. 지적선들의 형태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들의 형태가 완벽하게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경성정도’가 보여주는 도시 재현 방식은 지형도와 지적도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도시의 형태가 지형도 상의 정보를 저본으로 하는 시가지의 저명 건물과 지적도 상의 정보를 저본으로 하는 지적선이 만들어내는 필지와 도로의 변증법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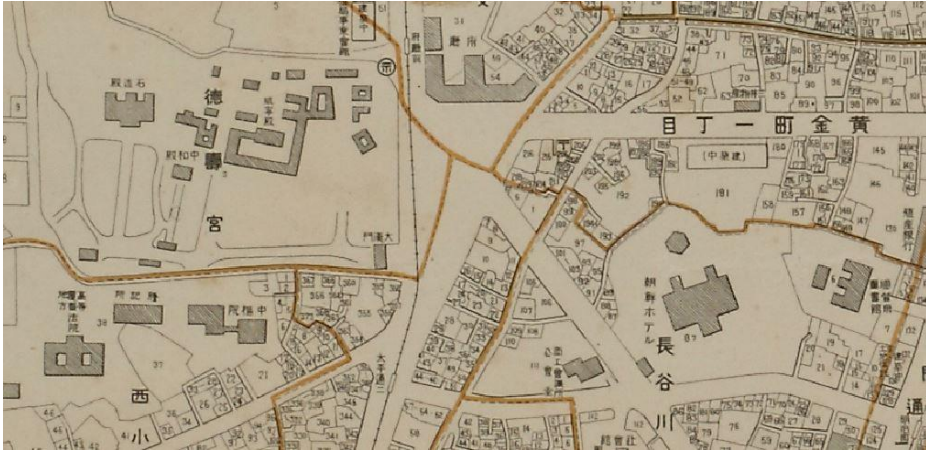


그림 3-12 대경성정도 - 5번 분도 부분 확대 이미지 - 경성부청 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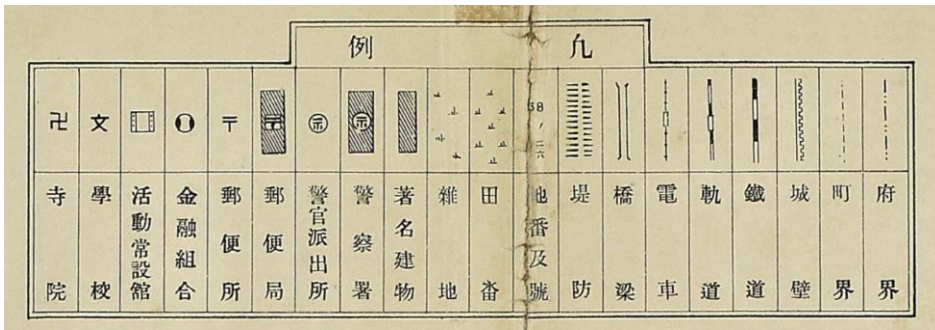


그림 3-13 대경성정도 분도 범례 (표지 부분 이미지)

분 류	범례 내 도시 정보
행정경계	부계(府界), 정계(町界)
교통시설	철도(鐵道), 궤도(軌道), 전차(電車) (정류소 및 역 포함)
토목시설	성벽(城壁), 교량(橋梁), 제방(堤防)
지 류	전답(田畝), 잡지(雜地)
건물정보	저명건물(著名建物), 경찰서(警察署), 경관파출소(警官派出所) 우편국(郵便局), 우편소(郵便所), 금융조합(金融組合) 활동상설관(活動常設館), 학교(學校), 사원(寺院)
행정정보	지번(地番) 및 호(號)

표 3-5 대경성정도 분도 범례 분류

4. 대경성정도의 도시 재현 방식과 이데올로기

4.1. 지적선으로 재현된 도시

파리넬리(Farinelli)는 도시의 기하학적 재현이 도시 공간의 경제적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도시의 표면과 건물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면서 도시 공간의 사용 가치보다 교환가치를 더 강조한다고 이야기한다.⁴⁶ 지적선으로 재현된 도시 역시 토지 위의 건축물보다 토지의 표면과 필지의 형태와 위치를 강조하면서 도시 공간의 교환 가치를 더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성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강해졌는데 필지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초기 ‘세금 징수를 위한 토지 면적의 기본단위’를 넘어서 ‘자본 축적의 수단이 되는 토지 경계의 기본단위’로 인식이 변화하게 된다.⁴⁷

일제 시대의 초기 지역 지구제로는 1913년 제정된 시가지건축취제규칙이 있다. 제 1조에서 시가지 내 각종 건축 활동은 부지에서 이루어지며, 제

⁴⁶ F. Farinelli. *I segni del mondo: immagine cartografica e discorso geografico in eta moderna*. Scandicci, Nuova Italia. 1992. p.17-34. Ola soderstrom. Paper Cities: Visual Thinking in Urban Planning, *Ecumene III/3*, 1996. 6, p.260 에서 재인용

⁴⁷ 송혜영, 2018, p.37

3조에서는 건물 또는 공작물의 구조와 설비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었다. 특히 건물의 기초는 공공도로 경계선의 1척 5촌 이상 거리를 지켜 축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지적공부의 작성에서 등장한 필지라는 등록단위를 배경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의 최대한도 설정 그리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수치상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필지의 개념이 제반 법령에 의하여 도입, 정립된 이후 부지에 대한 건축 활동의 규제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필지가 구획의 경계 개념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⁸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에 이르면서 도시 인구의 증가와 민간 건축활동의 증가,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자본 축적의 기본 단위’로서의 토지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1920년대까지는 주요 공공시설들의 건축이 활발하였으며 당시의 건축 활동이 관에서 주도되고 있었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 부문의 활동이 주도하는 특징을 보인다.⁴⁹ 또한 당시 논의되고 있던 1936년의 부역 확장과, 활발히 진행되던 문화 주택 사업 등의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빈 땅, 신시가지 건설의 밑바탕으로서 필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중요성의 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도시 재현 방식이 의미하는 바는 대경성정도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던 ‘대경성부대관(1935)’과 ‘경성시가도(1933)’와 비교하였을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 각 지도는 재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시 정보가 다른데, 항공사진을 저본으로 조감도로 제작된 ‘대경성부대관’이 세세한 도시 건물들의 입면까지 재현하면서 도시의 구축환경을 최대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경성시가도’의 경우 평면도법으로 제작되었기에 건물 정보가 평면으로 간략화되었지만 주요 건물의 윤곽선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도시 내의 건물군들의 형태

⁴⁸ 송혜영, 2018, p.37

⁴⁹ 김용범, 1920~30년대 경성의 근대 건축활동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학연구 42호. 2011. P.31



그림 4-1 대경성부대관, 1936, 153 x 142cm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4-2 경성시가도, 1933, 1:7,500, 98.4 x 99cm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역시 표현되어 있어 도시의 형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대경성정도’의 경우 도시 내의 이미 구축된 물리적 환경보다는, 비어있는 토지들을 보여주며, 앞으로 그 위에 지어질 새로운 건축을 위한 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토지 정보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방식은 당시 증가한, 새로운 건축활동과 토지 거래의 압력으로 해석된다.

4.2. 이데올로기와 재현 방식의 반복

전후 복구 시기 이후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근대화, 산업화 개발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의 모습의 변화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도구화된 도시계획법을 통하여 진행되었고⁵⁰, 기존 도시의 관리보다는 도시의 확장과 새로운 시가지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34년에 제정되었던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부 용어가 변경된 채 ‘시가지계획령’이라는 이름으로 1962년까지 법적 효력을 가진 도시계획의 근거법으로 존속되었다.⁵¹ 1962년에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시가지계획령은 폐지되었고, 1971년과 2000년에 각기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2002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두 법제의 세분화의 정도는 다르지만, 도시 계획(마스터플랜)과 건축법(건축물 규제)을 지역 지구, 구역의 계획(조닝 계획)이 연결하고 있는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같은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모든 법령에서 도시계획의 목적 중 가장 우선된 것이 ‘개발’이라는 점에서⁵² 개발과 확장의 대상으로서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계속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의 법 제정과 정책은 도시계획법에서 1966년에 분리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1973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80년의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도시 관련법들로 보았을 때 부족한 택지 공급, 낙후 지역의 재개발, 산업단지 및 주택, 그리고 하부시설의 제공이란

⁵⁰ 박형용. 한국의 근대도시계획 형성. 공간과 사회 통권 제9호. 1997. p.90

⁵¹ 윤희철. 시가지계획령(1934-1962)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법제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96

⁵² Ibid.,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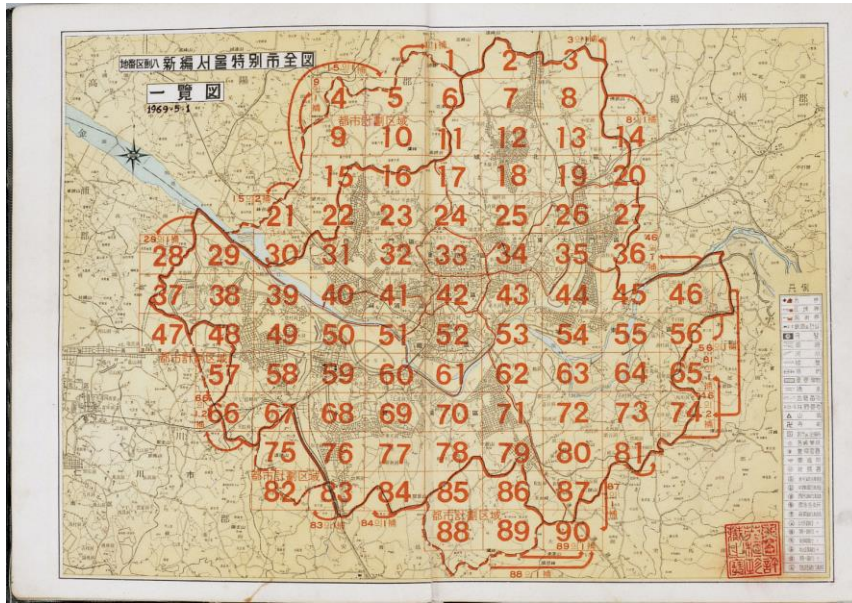


그림 4-3 신편서울특별시전도일람도, 1969, 26.8 x 19.2cm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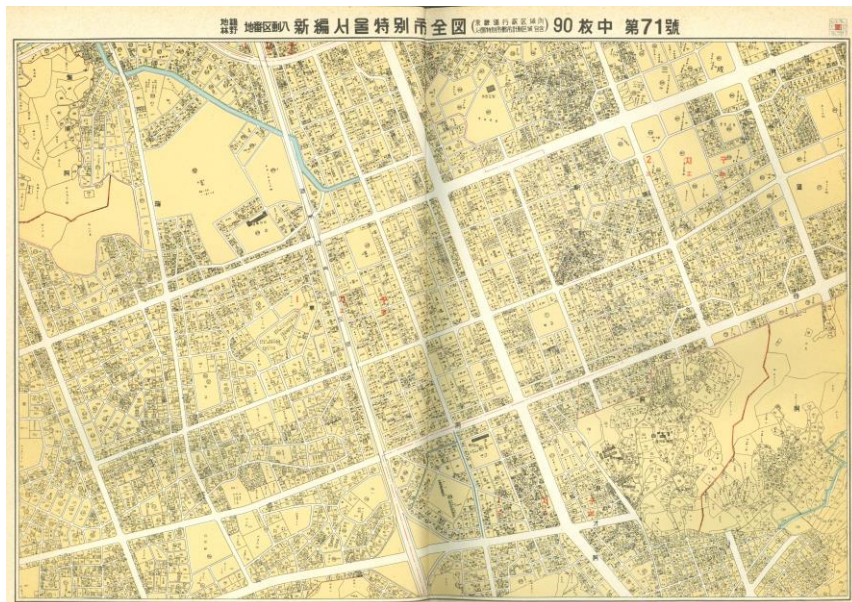


그림 4-4 신편서울특별시전도, 1971, 26.8 x 19.2cm
(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지배적이었다.⁵³

1969년, 1974년, 그리고 1989년에 중앙지도문화사에서 제작 및 출판된 ‘신편서울특별시전도’는 1936년의 ‘대경성정도’를 모본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성과 재현 방식이 흡사한데, 한 장의 전체 일람도와 1:10,000 축적의 90장의 분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도에는 행정경계가 붉은 색으로 가장 강조되어 있고 도시 전체는 지적 구획과 지번으로 표현되어 주요 건물들만이 건물 윤곽선으로 재현되어 있다.

이 역시 ‘대경성정도’와 같이 기존의 도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개발과 관리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표현하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1930년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신시가지의 건설, 토지정리사업을 통한 도심부 재개발 등의 도시계획 방법론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⁵³ 박형용. 1997. p.90

5. 결 론

‘대경성정도’를 연구의 대상 지도로 선정한 이유는, 한반도의 근대적 측량이 시작된 대한제국기나 일제강점기 초기 이후로 제작된 다른 경성(한양)의 민간시가지지도들과 상이한 도시 재현 방식을 보이기 때문이다. 1910년대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로 제작된 지적원도들에 기입된 정보인 필지선, 지적선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도에 등장한, 현재까지 발견된 첫 사례이다. 그 이후로 같은 재현 방식으로 제작된 지도는 해방 후 1960년대에 이르러 등장하게 된다.

본 연구는 ‘대경성정도’의 재현 방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근대적 측량이 첫 시행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지도의 도시 재현 분석을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근대적 측량 방식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고, 측량도인 지형도와 지적도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지도학 내적 요인으로 인한 도시 재현 방식의 변화를 분석한다. 새로운 측량이나, 새로운 토지 관련 법령 제정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도시 정보가 민간시가지도에 등장한다. 두번째로 민간시가지도의 제작에 있어서 측량에 의하여 생산된 도시 정보의 선택과 재가공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 문화적 압력, 지도학 외적 요인이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먼저 경성의 측량 연보와 지형도와 지적도의 제작 연보를 살펴보아, 지도학 내적 요인의 시대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구 범주 시기의 민간 시가지도들의 변화 양상을 도출해내었다. 이는 ‘대경성정도’의 도시 재현 방식이 지도학 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시가지도의 연보 속에서 ‘대경성정도’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경성정도’에 기입된 지적선이라는 토지 정보의 경우 정보의 저본이 되는 지적도가 1910년대에 이미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이 되어서야 시가지도의 제작자에 의하여 선택되고, 재가공되었다는 점에서 ‘대경성정도’가 보여주는 변화는 지도학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현 방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930년대의 증가한 건축활동과 토지 거래 증가,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도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필지라는 매개체의 중요성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참고 문헌

- 국립지리원 (1981).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지반측량편』,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편, 건설부 국립지리원 역,
국립지리정보원 (2006). 『한국지도학발달사』
리진호(1999). 『한국지적사』. 서울:바른길.
서울역사박물관 (2009). 『서울지도』, 서울:예맥출판사.
육지측량부 (1931). 陸地測量部發行地圖目錄:
昭和6年9月現在(육지측량부발행지도목록: 쇼와6년9월현재)
윤희철 (2011). 시가지계획령(1934~1962)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법제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김백영 (2011). 식민권력과 광장공간 - 일제하 서울시내 광장의 형성과 활용.
사회와 역사. 통권 90집.
김영수, 지종덕 (2011), 국지적측량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1),
김용범(2011), 1920~30년대 경성의 근대 건축활동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학연구
42호.
남영우(2007),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한반도 지도제작, 한국지도학회지 제 7권 제
1호,
박형용 (1997). 한국의 근대도시계획 형성. 공간과 사회. 통권 9호.
반도미야 (2008), 대한제국기의 토지조사와 지도제작에 관한 고찰 - 한성부
대축척 실측도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제52호,
범선규 (2003), 1:50,000 지형도의 상징화된 범례와 그 변천, 한국지도학회지, 3(1),
송혜영 (2018). 일제강점기 지적공부의 작성과 의미, 건축역사연구, 제27권 2호
통권117호,
안창모 (2006). 근대지도로 읽는 서울 - 한양, 경성, 서울의 삶과 도시변화.
서울역사박물관 (편). 『서울지도』, 서울:예맥출판사.
양보경, 김종근 (2015). 한성부지적도 - 서울 지도의 근대화와 근대 서울의 이력서.
서울역사박물관 (편). 『한성부지적도』.
Jameson, Fredric (1991).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Soderstrom, Ola (1996). Paper Cities: Visual Thinking in Urban Planning. Ecumene,

III/3

Cosgrove, Denis (1999). Introduction. Cosgrove, Denis. (ed.) (1999). Mapping.

London: Reaktion Books

Jameson, Fredric (1990). Cognitive Mapping. Nelson, C., Grossberg, L. (ed.).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